진리
평화
창조

# 외대학보

발행인 이강혁
편집인 김덕수
주간 김삼석
편집장 박재철
외대신문과 ☎962-7128, 961-4151
외대학보 ☎961-4152, 961-4183(FAX겸용)
학생기자실 959-6574,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89
인쇄인 김상영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제 다2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616호 1993년 11월9일 (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언협, 용인 총학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생회의 모습

### 사회문제보다 학내 문제 해결 주력 (56.5%)
### 정치투쟁 앞서 학문탐구의 장 마련해야 (56.9%)
### 학내문제, 민주적 절차로 함께 풀어야 (69.9%)

**<설문조사결과 요약>**

당신은 학내 어떤 단위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동아리(29.6%) 학생회(7.1%) 과 학회(편집부.포함) (28%) 스터디 그룹(7%) 무소속(21.9%) 기타(5.7%)

당신은 소속 단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26.1%) 인력부족과 재정난(26%) 타 단위와 연계성 부족(12%) 단위의 체계와 활동 내용 부족(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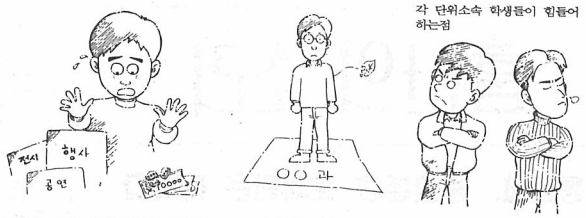
위 문항에서 답한 힘든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학생회와는 어떠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별개의 문제(15.7%) 밀접한 연계필요(30%)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완벽한 문제 해결엔 미흡(50.9%) 기타(3.3%)

여러가지 학내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들과 학생회간의 관계는 어때야 한다고 보십니까?
학생회가 전적으로 해결(18.5%) 민주적으로 함께 해결(69.9%) 학생들은 학생회를 믿고 문제점 해결(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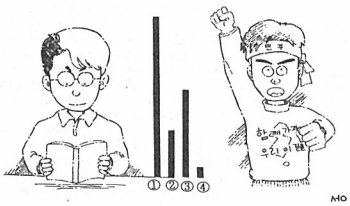
현 시기에 학생회의 최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학내 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점 해결(56.5%) 학원 교육 개혁 위한 해결점으로 사회 민주대개혁에 힘써야 한다(14.6%)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27.4%) 기타(1.4%)

현 시기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정치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시기에 더이상 정치투쟁이 필요없다. (12.7%) 학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투쟁도 함께 해야 한다(27.2%) 정치투쟁도 필요하나 학문탐구의 장을 먼저 마련해 주어야 한다(56.9%) 기타(3.2%)

각 단위소속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점




과학회—체계 · 활동내용부족, 재정난　　학생회—인력난　　동아리—인간관계




현 시기 학생회의 최고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학생들의 학내 생활 전반에 문제점 해결(56.5%)
②학원의 교육개혁을 위한 근본적 해결점인 사회 민주대개혁을 위해 힘써야 한다(14.6%)
③배움의 전당으로써 학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27.4%)
④기타(1.4%)

용인캠퍼스 제15대 정 · 부 총학생회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제13대 총학생회장의 사퇴, 제14대 총학생회의 불신임으로 불안감을 주었던 학내 상황은 용인캠퍼스 학생들에게 학생회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시기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음 제15대 총학생회를 올곧게 세우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용인캠퍼스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를 맞아 언론협의회에서는 오늘 있을 제15대 정 · 부 총학생회장 후보와의 정견토론회 사전조사로 지난 4일·5일 이틀 동안 용인캠퍼스 5백 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생회의 모습과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용인캠퍼스 학생들은 14대 총학생회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의 보완을 차기 총학생회에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간부의 자질문제(37.1%),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25.9%) 등을 14대 총학생회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15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48%), 책임감과 성실함을 지닌 학생회가 되길 바라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현시기 학생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내 생활 전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56.5%)이라고 다수가 답한 반면 이의 근본 해결을 위한 사회개혁에 대해서는 14.6%만의 학생들이 이를 학생회의 역할이라 답했다.

또한 정치 투쟁에 앞서 학문 탐구의 장을 먼저 마련해주는 학생회를 바라는 의견이 많아(56.9%)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의식 변화를 알 수 있다.

학생들이 학내 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장 불편한 점은 역시 복지문제(36.1%)와 교통문제(32.2%)로 나타났다. 반면 교수진과 강의의 질적 저하와 학문탐구의 장이 부족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각 11.8%, 18.2%가 답해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환경의 개선을 학생들은 요구했다. 또한 이런 학내 문제의 해결은 학생회만이 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18.5%)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렴해 학생회와 학생이 함께 풀어 갈 것을 지적했다. (69.9%)

좀더 자세히게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묻는 질문에서는 동아리에 몸담고 있는 학생들은 32.9%가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가장 힘든 점이라 답했고 재정난과 인력난을 지적한 의견도 있었다. (29.7%)

또한 과학회 같은 경우 학회의 체계와 활동 내용의 부족과(42.1%), 인력난과 재정난을(23.1%)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답했다.

그리고 학생회 간부는 인력난을(44.8%), 스터디 그룹과 같은 소모임에 속해있는 학생들은 체계적인 활동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36.6%)

이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학생회와의 연계에 대해서는 30%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답을 한 반면 이보다 많은 50.9%의 학생들은 학생회는 도움은 줄 수 있으나 지체 내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주체적 역량을 쌓는 데는 긍정적인 면의 답변이지만 학생회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학생회의 수준이 학생들 생활 구석구석까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의 학생회가 학생들이 생각하는 모습의 학생회로서 자리매김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좀더 열린 학생회, 학생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변화된 학생회의 모습이 차기 학생회가 풀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여론부>

**빈의자**

## 조작극의 필수조건

▲"법의 심판은 끝이지만 역사의 심판은 남아있다. 역사의 심판은 증거가 남아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이다. 이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몫이다. 그것이 김기설 씨의 죽음의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 그것이 죽은 자의 원이다." 이것은 방송 취소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강기훈 유서 대필사건 편)'의 마지막 대사이다.

방송이 취소된 지 1주일 후 '제2의 언론'이라고 불리는 PC통신에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의 진상'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난 10월에 방송취소된 '그것이 알고싶다'의 내용부터 91년 5월 언론이 외면한 증언들이 줄을 이었다. 또 한번, 언론의 부력함과 기만성을 확인하게 하는 일이다.

▲ 권력의 앞에 선 인기부와 검찰이 조작극을 만들어 낸 일은 우리 현대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는데 빼놓을 수 없는 필수조건은 바로 '언론'이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서도 언론은 "유서의 글씨와 김기설의 글씨의 동일성 여부를 논단할 수 없다"를 "글씨가 다르다. 유서가 대필되었다"로 이끌어 냈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검찰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검찰과 상반되는 전민련의 주장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당시 그 사건을 조사하던 기자로서는 분명히 유서대필이 아님을 확신했으나 방송할 수 없었다는 MBC 박진숙 기자의 말을 옮기지 않더라도, 언론이 '권력의 나팔' 노릇을 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사건이 있은 지 2년 6개월 만에,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으로 다큐멘터리와 백서가 제작되고, 검찰의 유일한 증인이었던 홍성은씨가 당당하게 진실을 이야기했다.

강기훈씨가 검찰에 자진출두하기 전 말했던 '진실은 통한다라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확인할 날은 정말 얼마남지 않은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도 강기훈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송취소되고, 우리는 그 내용을 TV화면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으로 봐야하는 것이 언론의 현실인 것이다.

▲ 언론이 계속해서 '권력의 나팔'임을 거부하지 않을 때, 민중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는 다른 언론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미 그것은 PC통신에서 TV방송을 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이헌재>

**지면안내**

3면 : 양캠 선거
6면 :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남북대화 전망
7면 : 노래속의 여성<2>—홍등가 여성상
8면 : 매체비평—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 보도에 대해
9면 : 김삼석, 김은주 간첩사건
10면 : 중흥외대, 민주총장과 함께 달린다<3>—총장선출제도

**기획광고—이렇게 합시다 <7>**

그러나,
당신의 참여만이
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가
외대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1991년, 왕산이 드디어 매스컴을 탔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선거 투표율 전국 최저'
□1992년, 총학생회장 사퇴!
□1993년, 총학생회 불신임!
□1994년, ……?
또다시 방관하시렵니까?

**제15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 일정**

일시 : 1993년 11월 10일(수) · 11일(목)
장소 : 각 단대 투표소
대상 : 외대 용인캠퍼스 재학생

외 대 학 보

# 사 설

## 총장은 …?

총장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생각할 거를도 없이 우리에게 던져진 이 명제는 낙엽이 흩뿌리는 가을 정취를 느끼기도 전에 우리 가슴을 허전하게 만들고 있다.

허전한 가슴짓을 어루고, 우리는 총장에 누가 되어야 하는가 보다 총장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먼저 짚어야 할 것이다.

총장은 누구인가? 먼저, 총장은 교육자이다. 대학은 교육기관이다.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총장은 확고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의 교육철학은 필부적인 정도의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정치관과 구분되는 정론적인 것이어야 한다.

둘째, 총장은 학자이다. 대학은 학문의 연구기관이다. 학문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은 학문적 업적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점에서 총장은 이미 탁월한 학문적 업적으로 인정받는 학자여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젊은 시절에 받은 박사학위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대학교수로서 많은 후학을 배출한 것처럼 그 스스로 많은 저서와 논문으로 학계의 인정을 받고 있어야 한다. 몇몇 동아리 그룹 정도의 인정이 아니라 학계를 뛰어넘는 대(大)학자로서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철학과 학문적 소신은 바로 총장이 되기 위한 학력이다.

여기에 총장은 관리자여야 한다. 대학은 미래를 위한 청조적 집단이다. 대학은 현재적 의미보다 미래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힘기 넘치는 학생들이 끊임없이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고 도전하는 곳도 바로 대학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은 현실적 욕구와 미래지향적 이상이 뒤엉킨 곳이다. 이것을 주도적으로 쏠 수 있는 능력이 총장에게는 있어야 한다. 또한 총장은 현실에 밝은 행정가적 기질도 발휘할 수 있으야지, 미래를 내다보고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문제를 화합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안목도 있는 관리자여야 한다. 이런 면에서 총장의 관리능력은 중요하다. 총장은 대학 내에 실재하는 모든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고, 외부의 인적, 물적 자원까지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학교발전의 조식으로 만들 수 있는 강한 흡인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국제화, 세계화라는 추세 속에서 대학만 국내용으로 안주할 수는 없다. 더구나 우리 대학은 우리 사회의 국제화를 선도해 온 기수였다. 따라서 우리 대학의 총장은 세계적인 식견을 갖춘 국제인이어야 한다.

여기에 대학은 무엇보다도 지식인 사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식인은 자유를 먹고 사는 존재이다. 그래서 대학에는 항상 건강한 자유가 넘치고 녹슬지 않는 진리가 숨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학 총장은 도덕적 자유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장은 봉사자여야 한다. 총장직은 명예직이 아니다. 권력직도 아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학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총장이 먼저 나서서 겸허하게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최선의 교육과 연구를 진작시키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교수, 학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다가오는 세 사내에 우리 학교를 맡겨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자들의 우리 문화기는 많은 교수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가? 대학 사회는 일반 사회와 달리야 한다. 대학은 질학으로 지향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교수는 그 질학을 실천하는 존재이다. 우수 신입생 선발, 중학 선거 등 학내외 문제가 산적한 현하의 계절에 교수들은 여유를 가지고 그 중심을 지키는 무게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감정이나 욕심보다는 이성과 희생으로 학교발전에 대해 고민하면서, 낙엽지는 스산한 가을에 모두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의 구성원들 모두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 분리수거가 전부는 아니지만

최근 2년에서 3년 사이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도 커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쓰레기 분리수거인데 우리나라에선 공원이나 역부근에서 분리수거통을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곳의 분리수거통을 들여다 보면 캔류를 모으는 통에 신문이나 비닐이 들어가 있는 꽤단이 발생한다. 분리수거의 효과를 보이는 곳은 주부회가 나서서 수거하는 아파트 단지 정도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또한, 기껏 분리수거를 해도 그것들을 처리하는 유통경로가 너무 까다로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않는 시민들의 무지나 주부들의 게으름을 긁하는 신문기사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다. 분리수거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분리수거의 문제점부터 고치지 않는한 우리나라의 환경대책은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분리수거라는 것은 일회용품의 생산이 거의 중단된다든지, 모든 공장에서 폐수를 지세 정화한다든지, 신문사에서 지기들의 지년 신문을 알아서 수거해 간다든지 할 때, 우리는 그냥 소각할 수 있는 것들만 일상적으로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을 때 완전히 필요가 없어진다. 환경파괴의 방지책이 지금처럼 생산,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선 거의 자기만족의 수준밖에는 안된다.

분리수거는 주부들의 가사노동을 더힘겹게 하는 요인도 된다. 대기업이나 관공서에서 남성들이 나서서 분리수거에 앞장선다는 미담(?)은 아직 들어보질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 분리수거가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한다면 대답은 '그래도 해야 한다'이다. 그래선 분리수거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보다 발전적으로 해야함은 물론이다.

분리수거는 지금 상황에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사람들이 환경운동에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계기정도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앞으로 분리수거가 너무 잘되서 정부로 하여금 근본대책을 강구하게 만든다면 더 바랄 것도 없겠지만 근본대책이란 나름대로 생각하기엔 생산자(기업들)가 사후처리까지 책임지는 것과 환경예산의 증가가 아닐까 한다.

정진관(자연 · 화학 2)

가장 정의감 있는 사람들, 가장 순수한 사람들.

—EC 92—

오른손엔 투쟁의 칼을, 왼손에는 펜을

-N 89-

순수한 열정과 차가운 이성의 조화를 위해 힘쓰는 자.

-P. T. J-

학점 따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학지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

-92. 뚜쟁이-

광기를 지닌 이

-크로마농인-

배움을 기본으로 한다. 배움은 단순히 책이 아니라 사회요, 인간이요, 게다가 실천을 더하면 CAP./

-92 IC-

고민 그 자체라고나 할까.

-학고 경영 93-

백지 대자보

주제 : 내가 생각하는 학생은?(학생의 날을 맞아 학생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학문을 생활로 바꾸는 지혜로운 이.

-복들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의식세계.

-외성철-

조국을 고민하는 자.

-삼-

실천하는 이가 진정 학생이다.

-진정하지 못한 아-

학생은 낮이지고지 하는 자이다.

조국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조국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조국을 위해 열심히 연애하고…

-돌대인-

나리의 기둥이라는데 필보나?

-홍서범-

# 흡산의 소리

## 통일교, 종교분쟁 문제만은 아니다

88년도 전국적으로 수행되었던 원리연구회(통일교 학원침투조직) 축출투쟁 이후 학원가에서 사라졌던 이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1시 30분경 대학원 소강당에서는 원리연구회와 통일교의 주최로 집회가 열렸다. 그리고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 50여명의 학생들이 모였으나 집회를 저지하지 못하고 몸싸움만 하다 끝나고 말았다.

우리는 통일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단순히 기독교의 이단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단순한 사이비 종교집단으로만 치부해 버릴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종교분쟁도 아니며 더군다나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에 옹호해서도 안된다. 이 나라에서 통일교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들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는 역사속에서 본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통일교는 해방 후 월남한 문선명이 부산에서 통일교 운동을 시작, 54년 서울에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의 간판을 내거는 것으로 그 출발을 본격화하였다.

통일교의 성장은 군사 독재 정권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5. 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후 박정희가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하고 천명하자 문선명은 여기에 재빨리 편승하여 반공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68년에는 국제승공연합을 조직했다. 또한 공기총 장사에 손을 대 돈을 벌기 시작한 후 이것을 기반으로 인류를 살상하는 통일산업(현 세일중공업)이라는 무기생산업에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또한 문선명은 66년 1월 10일 대학생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대학 원리연구회'를 발족했다. 그리고 전두환이 등장한 후 당시 인기부장이던 장세동과 이른바 '최경사냥'으로 불리우는 정치적 밀약을 맺고 학원 내의 학생운동을 파괴해 주는 댓가로 통일교의 정치경제 진출을 보장받았다.

87년 충북대의 경우 원리연구회 소속 핵심인자가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총학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자 ! 북으로, 지상의 낙원으로 !' 라는 흑색선전물을 제작 배포하고는 학내 운동권 학생들의 소행으로 뒤집어 씌워 70여명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조작사건임이 밝혀져 원리연구회원들이 연행되었으나 장세동의 비호로 위기를 넘겼다.

이것이 통일교의 실체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폭력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 우리는 힘을 사용해서라도 집회를 저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통일교 제단인 세일중공업에서의 살인적인 노동통제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구사대와 공권력을 동원하여 파괴하였던 자들은 누구인가. 90년 경북대 총학생회장 후보를 납치하여 사퇴하라는 협박을 가했던 자들은 누구인가. 그런 그들이 어떻게 폭력이란 말을 쓸 수 있는지…

87년 이후 학생들의 행동이 활발했을 때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던 그들이 좌익의 공백을 틈타 다시 학교로 진출하려 하고 있다.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단호한 행동 뿐이다. 이제 학교 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만이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조영재(서양 · 서어 4)

# 학생처, 구태의연한 행정업무의 개선을

지난주는 시월제 관계로 무척 부산했다. 얼마전 모임장소를 클럽하기 위하여 학생처를 들러서 모임장소를 사용하고 싶다는 교구사용 허가원을 냈다. 그리고 모임시간이 임박해서 준비에 열중하고 있는데, 모과에서 자신도 학생처에서 우리가 모임을 하기로 한 장의실을 빌어 놓았다고 해서 아연실색을 했다.

행정착오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는 우리가 꼭 이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홍보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지금와서 바꾸기 어려우니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다행히 그 과에서 양보해주어서 한시름 놓았다. 그리고 한참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수위아저씨가 강의실을 비워달라고 하셨다. 그래서 교구 사용 허가를 받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의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아저씨는 자신이 학생처로부터 장소허가를 연락 받은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초지정을 애기하고 나중에는 담배 한 갑까지 더 했지만 마음이 무척 언짢았다.

축제나 행사가 많은 날이면 학교 교구사용허가를 받지만, 구태의연한 업무처리로 모임이 중복되거나 연락이 안되서 불편함을 겪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좀더 학생처에서 모임장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정했더라면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교구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학생처에 가면 수시로 담당자가 없을 때가 많고 천신만고(?) 끝에 사정사정하여 얻어낸 장소까지도 수위아저씨와 연락이 안돼 여러번 학생처를 찾아가게 된다. 학생처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무처리를 신속히 하고 현재의 주어진 공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면 이런 불편함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학생처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르바이트 건이다. 매 학기초면 아르바이트 신청을 학생처에서 받는다. 사전도 붙이고 원하는 직종, 보수, 원하는 시간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지만, 정작 집으로는 연락 한번 안온다. 수시로 학생처를 기웃거려 게시판에 붙여논 아르바이트건을 보면서 자신이 직접 구해야 하는 것이다.

매 학기초마다 그렇게 꼼꼼할 정도로 기재하는 사항이 별로 효과가 없다. 더구나 보통 8학기를 다니게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경우, 8번씩이나 신청서를 들고 학생처를 드나들어야 한다. 특별히 군대를 간다거나 주소가 바뀌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 학적이 변동되지 않은 학생에게는 처음 제출한 아르바이트 신청서가 유효하도록 했으면 한다.

매학기마다 제출하는 노력과 시간이 이만 저만 부담이 아니고 설사 제출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직종에 부임을 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당수의 아르바이트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신분보장이 정지하지 않아도 가능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굳이 행정을 중복해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거야말로 시간, 인력 낭비밖에 더 되겠는가?

1학기 때 총학생회와 주소록 문제로 대립하였을 때, 학생처 직원들이 근무조건이 위험발는 이러한 현실에서는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글을 쓴것을 읽은적이 있다. 과거 학생처가 학생들로부터 지신의 이익에는 민감하면서 대다수의 학생들의 관심은 외면하고 있고, 천재단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을 감안한다면 학생처에 바라는 우리의 요구에 민감하기를 원한다.

서 훈(정과 · 행정 3)

# 왕산에 따스한 통일의 바람을

'왕산에는 가을이 없다'라는 말이 새삼스레 실감나는 이때이다. 쌀쌀한 초겨울의 바람이 왕산인들을 옴츠리게 하는 요즘에 민족영화제 빛모음에서는 왕산인들에게 따스한 통일의 바람을 전하고자 한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북한을 현실 그 자체로 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창구 단일화 주장이 아닌 민간차원의 자주적 교류가 적극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의 동포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듣을 수 있어야 전국민적 차원의 통일이 실제로 가능해 질 수 있다.

이러한 자주교류 속에서 통일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고, 민족 대단결을 이루어서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김영삼 정권은 북한의 핵문제를 빌미로 삼아 91년에 체택한 남북합의서조차도 발효시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김영삼 정권의 논리는 전국민의 통일의지를 꺾아 내리고 있고 통일의 시기 또한 늦춰질 수밖에 없다.

세계 속에서 미국은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만큼 남한에 농산물 개방 압력 등의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고 일본은 나름대로 자위대 파병 및 플루토늄 대량 반입 등으로 신군국주의를 꾀할려고 하고 있다.

이런 주변 정세 속에서 민족의 통일은 단순한 소원이 아닌 민족 생존의 문제가 되는 시기이다. 북한 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을 이해할 수 있고 북한 문화를 접할 계기를 마련해 조금이나마 조국통일을 위한 노력의 한 부분으로 기여를 하고자 한다. 이번 북한의 영화 작품은 3편으로 이산가족의 아픔을 다룬 '세', 역사물인 '온달', 그리고 민화영화인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이다

준비 기간 동안 가장 어려웠던 것은 통제된 정보와 적절 확보의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또한 분단된 조국의 아픔이라 생각하다. 풍부하지 못한 내용과 충분치 못한 준비지만 통일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왕산 5천 3백 학생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니 왕산인들의 많은 관람을 기대한다.

도장욱(동학 · 아프리카어 4)

좋은 기업, 그곳엔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수퍽스 추구)

수퍽스(Super Excellent Level)를 가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세계 일류 기업은 다 자기의 여러가 위해 실천의 개발한 경영 방법으로 실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거나 되려면 수퍽스 수준이상.

수퍽스(Super Excellent)를 추구 하는 수준을 여러분 자신이 실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미국이나 일본의 뒤만 따라갈 것인가?"

세계 최초로 제3세대 항암제 개발에 성공한 김대기 박사와 팀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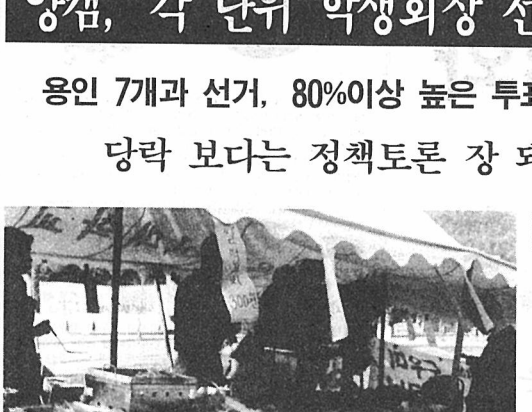
4년전, 생명과학 연구소 김대기 박사와 그의 팀원들이 기존의 항암제보다 한차원 앞선 새로운 개념의 제3세대 항암제를 우리 힘으로 개발하겠다고 했을때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계 일류기업들도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10년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성공 확률은 1/12,00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미국이나 일본의 뒤만 따라갈 것인가?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보다 훨씬 앞선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지 않고서는 이들을 앞지를 수 없다."
결국 이들의 열의는 회사의 전적인 지원으로 이어졌고 암과의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화합물의 합성, 약효 및 독성검색이 되풀이 된지 4년—
결국 김박사를 팀장으로 한 팀원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마침내 세계 최초로 제3세대 항암제 개발에 성공, 암정복의 전환점을 우리 손으로 이루게 된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 하다고 했을때, 오히려 우리는 도전해볼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기술 수준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떨어져 있을수록 이들보다 앞선 목표를 추구해야 경쟁이 가능한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임상실험도 성공시켜 암정복의 그날을 앞당기겠다는 이들의 모습이 믿음직스럽게만 보입니다.

SUNKYONG
鮮京그룹

# 양캠, 각 단위 학생회장 선거 실시

## 용인 7개과 선거, 80%이상 높은 투표율 보여

## 당락 보다는 정책토론 장 돼야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선거기금을 공개적으로 모금하고 있다.

지난 2일(화) 용인캠퍼스 마인어과의 과회장 선거를 시작으로 양캠퍼스 각 단위 학생회의 회장단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마인어과는 이날 선거에서 13대 과회장으로 최경찬(3년)군을 선출했다. 또한 3일(수)부터 4일(목)까지 이틀간에 걸쳐 영어과, 아랍어과 학생회 선거가 있었다. 영어과는 단독추보로 출마한 원종수(3년), 제승준(4년) 군을 56% 투표율에 90%이상의 찬성으로 각각 정·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아랍어과에서는 정장민(2년)군이 1백 15명 투표에 98명의 찬성으로 과회장에 당선됐다. 또한 4일(목), 5일(금) 에는 폴란드어과, 체코어과, 루마니아어과, 포르투갈어과 선거가 있었다. 폴란드어과는 81.2%라는 높은 투표율에 87.2% 지지율로 최원창(3년) 군을, 체코어과는 78.6% 투표율에 90.2% 찬성으로 안성우(2년) 군을, 루마니아어과는 이대성(2년) 군, 포르투칼어과는 남만식(3년) 군을 각각 학생회장으로 선출했다. 오늘(9일) 은 김동구(3년) 군이 출마한 환경학과 학생회장 선거가 치뤄진다.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선거일인 10일(화), 11일(수) 에는 김정태(3년) 군이 후보로 나온 아프리카어과, 서장호(2년) 군이 출마한 노어과, 양태조(3년) 군이 출마한 인도어과, 이정익(2년) 군이 출마한 중국어과 선거가 진행된다. 또한 엄익준(2년) 군이 출마한 사학과는 오는 15일(월), 김종원(2년) 군이 출마한 언어학과는 오는 17일(수), 아직 입후보자가 나오지 않은 서반아어과는 16일(화), 청학과는 18일(목) 에 각각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2일(화) 통목마감을 마친 동구어대와 동양학대는 1백 85장의 추천서를 받은 김재규(체코어 3) 군과 2백 50장의 추천서를 받은 최낙윤(아프리카어 3) 군이 단대 학생회장으로 각각 단독 입후보했다. 투표일은 동구어대는 18일(목), 동양학대는 17일, 18일 이틀간이다. 또한 지난 3일(화) 입후보자 통목마감을 마친 충어학생회 정·부회장 후보로는 김민정(서학·서반아어 2), 이선영(지연·환경 3) 양이 3백 50장의 추천인 명부와 함께 입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충어학생회 정·부회장 투표일은 오는 24일(수), 25일(목) 이다.

오늘(9일) 입후보자 등록마감일인 인문대는 오는 22일(화) 에, 10일(수) 등록마감일인 서양학대는 23일, 24일 양일간에, 자연대는 19일(금) 에 각각 선거를 치룬다.

12일(금) 등록마감일인 사회대와 대생협의 선거는 오는 24일, 25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다.

한편, 아직 총학생회 선거일정이 나오지 않은 서울캠퍼스는 지난 4일(목) 영교과 과회장 선거를 시작으로 5일(금) 에는 노어과 선거가 진행됐다. 영교과는 오전수(2년) 군과 유보람(1년) 양이 정·부회장으로, 노어과는 류지타(2년) 군이 회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또한 임준락(3년) 군이 출마한 마인어과는 오늘(9일), 권영민(2년) 군이 출마한 독교과는 오는 11일(목) 선거가 실시된다.

단대 선거를 살펴보면, 2팀의 후보가 출마한 사범대는 오는 15일(월) 합동유세가 있고 18일(목) 선거를 치룬다. 후보로는 이신우(한교 3), 장훈화(독교 3) 조와 김재건(한교 3), 김정순(불교 3) 조가 각각 정·부회장으로 출마했다. 오는 15일(월) 부터 17일(수) 까지가 입후보자 등록마감일인 상경대 학생회 선거는 오는 23일(화) 에, 10일(수) 부터 12일(금) 까지가 후보자 등록일정인 동양어대와 서양어대는 23일(화) 에 선거가 치뤄진다.

이번 달 말이면 거의 모든 단위의 선거가 마감되는 올해 선거는 양캠퍼스 모두 후보자의 당락보다는 현해의 학생회를 뒤돌아보고 내년도 학생회가 나아갈 바를 정책적 내용으로 토론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다.

<이현재 기자>

## 용인, 후복관 투쟁 진전 보여

### 학교측 3층건물 건설 의사 밝혀

용인캠퍼스 단위학생회 연합(의장 박영창 서양학대 학생회장)은 오늘(9일), 지난 달 25일(월) 부터 진행해왔던 '후생복지관 건립을 위한 5천 3백 왕산인 청원서 만들기 운동'을 마감하고 청원서 2천여장을 이창복 부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여서 이후에도 후생복지관 건설과 관련, 학생들의 가시적인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학기초부터 대두돼왔던 후생복지관 건설문제는 지난달 7일(목) 학생처장과 학생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3층 규모의 건물 건설을 5개년계획안에 포함시키자는 대학당국의 제의에 거부의사를 표명했다고 단위학생회 연합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영창군은 "학교가 들어선지 15년이 다되도록 대학촌이 부재하고 복지시설은 아직 너무도 열악한 상황에서 승차장 가건물로 후생복지관을 대체하자는 학교측의 그동안의 주장은 너무도 무성의한 태도였다"며 "3층건물에 과연 학우들이 요구하는 목욕탕, 전시실, 영화관, 음악감상실, 백화점 등의 후생복지시설이 마련될 수 있는 지 의문스럽다"며 지하 1층, 지상 5층이상의 건물을 신장의동 완공시기인 내년도 4월 부터 당장 착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위학생회 연합은 "선거기간에 지칫 우리들의 요구가 희석화되기 쉽다"며 "선거기간은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학생회 차원에서 수용, 학생회로 학우들이 단결하고 올해 학생회를 뒤돌아보며 내년도 학생회가 나아갈 바를 대중적으로 공유하는 기간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후생복지관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이후 수강신청거부등 의무불이행 투쟁을 계속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노조, 총장선거 규정안 개정 교협, 12일 총회 개최

총장선출에 대해 교수협의회를 제외한 학내 단체들이 노조의 총장후보자선거규정안(이하 선거안)발표를 계기로 의견차를 좁혀 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금) 노조를 비롯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는 노조의 선거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오늘(9일)까지 이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과 이견에 대해 다시 논의해 최종입장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노조의 선거안은 교수협의회 추천인 8인과 학생회및 노조 추천인 각각 6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제직교원 전체와 직원 학생대표 각각 50인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3인의 최종 입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을 그 골간으로 하고 있다. 이 선거규정안은 지금까지 3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선출방식을 결정하자는 노조측의 원래 주장에서 선거권을 교수협의회측에 양보한다는 의도가 내재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 조합장 유기찬씨는 "총장선출에 있어서 교수협의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나머지 제단체가 공동된 안을 내와 공동행동해야 한다"며 학내 제단체의 일치단결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수협의회는 오는 12일(금) 총회를 가져 교수협의회의 총장선출안을 확정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서울캠퍼스 후생과를 점검한다 〈1〉

## 매출액 13억에 매해 적자 운영

서울캠퍼스 구내서점 건물, 정면에서 조금 오른쪽을 보면 또 하나의 출입구가 있고 그곳에 2개의 사무실이 있다. 비상계획관실과 후생과이다. 비상계획관실은 예비군훈련을 담당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후생과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후생과는 학내의 제반 복지를 담당하는 곳이다.

후생과가 관할하는 범위는 매우 넓다. 구내식당, 학생회관·대학원·도서관 지하의 매점, 구내 서점 등을 직영하며 자판기, 이발소, 복사실 등을 충괄한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가격이나 질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책임은 후생과가 지게된다. 한마디로 말해 서울캠퍼스 학내 제반 복지문제는 후생과가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렇다면 이렇게 학내 복지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후생과의 전반적인 운영과 체계를 점검해 보도록 하자.

후생과는 총무처에 직속된 기구이다. 하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총무처내의 타부서와 다른 점으로 꼽힌다. 독립채산제 상태라는 것은 학교예산과 따로 독립되어져 운영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후생과는 대학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기계의 고장이나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재정관련 일들은 후생과 자체적으로 처리된다.

92년 자료에 의하면 후생과는 현재 약 3천여만원의 적자를 안고 있다. 재정체계상 전년도의 손실을 다음해로 이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학내 복지시설에 투자할 엄두를 내기 힘들다. 현재상황에서 적자가 나지 않으면 다행이고 흑자가 나도 3천여만원의 누적적자를 메꾸는데 쓰여진다. 구내서점에 대한 불만은 다음과 같다. 구내서점에 비치한 서적은 전공서적이 대부분이고 일반 교양서적이나 사회과학 서적은 그 수가 적다는 것이 학생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작년도 서점의 순이익은 2백여만원 정도이다. 학생들의 요구에 그다지 부응하지 못하고 1년에 2백만원 정도밖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서점을 외부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오히려 제정적 측면에서 더 낫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 직영 매장 수익, 장학금으로 반환 돼야

다. 1년에 3천만원 이상의 흑자가 나서 적자를 메꿔주지 않는 한 항상 적자상태로 남는 것이다. 후생과 1년 총매출액은 92년도에 약 13억 정도이며 적자의 주요원인은 학생식당과 대학원 매점 등이다. 적자 발생시 서점이나 매점의 이익으로 대체해 전체적인 후생과의 결산이 산출된다.

후생과가 거느리고 있는 가족도 많다. 후생과 직영의 업소에서의 모든 인건비를 후생과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92년에는 인건비만으로 약 3천 7백여만원이 쏘일 정도이다.

후생과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은 대략 이런 것들이 있다. 식당에 대한 불만, 구내 서점에 대한 불만, 매점에 대한 불만이 세가지로 나뉠 수 있다. 식당에 대한 불만의 대부분은 가격문제이다. 가격은 8백원에서 1천 4백원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학생들의 불만은 해마다 식당의 가격이 오른다는 데서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는 이후 관·식당·대학원·도서관 지하의 매점, 구내 서점 등을 직영하며 자판기, 이발소, 복사실 등을 충괄한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가격이나 질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책임은 후생과가 지게된다. 한마디로 말해 서울캠퍼스 학내 제반 복지문제는 후생과가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렇다면 이렇게 학내 복지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후생과의 전반적인 운영과 체계를 점검해 보도록 하자.

후생과는 총무처에 직속된 기구이다. 하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총무처내의 타부서와 다른 점으로 꼽힌다. 독립채산제 상태라는 것은 학교예산과 따로 독립되어져 운영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후생과는 대학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기계의 고장이나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재정관련 일들은 후생과 자체적으로 처리된다.

92년 자료에 의하면 후생과는 현재 약 3천여만원의 적자를 안고 있다. 재정체계상 전년도의 손실을 다음해로 이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학내 복지시설에 투자할 엄두를 내기 힘들다. 현재상황에서 적자가 나지 않으면 다행이고 흑자가 나도 3천여만원의 누적적자를 메꾸는데 쓰여진다. 구내서점에 대한 불만은 다음과 같다. 구내서점에 비치한 서적은 전공서적이 대부분이고 일반 교양서적이나 사회과학 서적은 그 수가 적다는 것이 학생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작년도 서점의 순이익은 2백여만원 정도이다. 학생들의 요구에 그다지 부응하지 못하고 1년에 2백만원 정도밖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서점을 외부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오히려 제정적 측면에서 더 낫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나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불만은 과연 후생과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당국의 담당기관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학내 모든 사람들의 복지생활 향상을 위해 복무하는 기관인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캠퍼스 학생복지위원장 양봉렬(상경·무역 4)군은 "후생과가 정말로 학내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면 현재 학생들이 받는 근로장학금을 직영이 아닌 데에서만 주지말고 직영하는 곳에서의 수익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후생과의 윤택한 외상정립을 촉구했다. 반면에 후생과의 외부적인 문제는 독립채산제 상태라는 것이다. 진술했듯이 적자를 끝어안고 대학당국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학내 복지시설의 확충이란 요원한 상태일 것이다.

〈대학부〉

# 서울 소방 도로문제, 해결 기미 없어

## 총학, 학교부지 확장등 대안마련 요구

서울캠퍼스 소방도로 문제에 대한 논란이 학생회 역량, 공사시한 촉박 등의 문제로 인해 공사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월 하순부터 제기돼 왔던 소방도로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와 촉박한 공사시일, 학생회 내부 상황 등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지난 4일(목) 오전 소방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학생들 사이에 소방도로 공사를 둘러싸고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다. 이날 문제가 됐던 주요쟁점은 학생들이 소방도로 공사를 반대하여 공사진행을 연기시킴에 따라 주민들이 이에 반발한 것이다.

또한, 학교부지에 대한 행정당국의 보상금을 재단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동대문 구청이 법원에 공탁처리해 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총학생회의 대응이란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주민들의 반대와 촉박한 공사시일, 선거일정이 일박해져 소방도로 문제에 힘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인 단위별 단대, 과 학생회 등의 제반 여건들이 총학생회의 소방도로 공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제시나 행동을 진퇴양난에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는 이후 대치방향을 소방도로 공사 전면반대보다는 우회도로안이나 학교주변 타 부지 매입, 공사파해에 대한 대책강화 등으로 모색하고 있다. 총학생회의 한 간부는 "총학생회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려 해도 각 단위 학생회가 학생들을 문제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방도로 공사는 지난 10월 4일 관리과의 나무 칠거로부터 시작하여 7일 총학생회의 충무과, 재단 함의방문, 24일 공사재개 등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소음·공간 문제 등의 이유로 재개와 중단 상태를 오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 한완상 통일원 장관님께 드리는 글

전국 대학신문기자연합(이하 전대기련)은 북한을 취재하기 위해서 9월 24일 통일원에 북한주민접촉 신청을 했습니다. 북한주민의 명절풍속, 북한의 대학제도, 북한의 대학생들의 생활, 북한의 대학언론 등에 대한 직접 취재를 통해 갈리진 49년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10월 19일 방북취재 불허통지를 해왔습니다.

불허통지를 통해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정부는 통 문제가 모든 것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라는 점" 이라며 "핵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될 때 까지 민간차원의 교류를 유보한다" 는 입장을 알려 왔습니다.

통일원장관 명의로 지희에게 통보된 불허 이유는 저희들을 참으로 안타깝게 합니다.

핵무기의 존재나 핵무기 제작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의 대북한 압력에 끌려다니며, 민족적 독자성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핵무기가 없다고 떠들면서 핵무기보유가 확실한 이스라엘이나 계측해서 핵실험을 해대고 있는 중국, 동해에 핵무기를 잠재는 러시아나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면서 확실치도 않은 정보만을 믿고 통일을 이루어야 한 남과 북이 계속 적대관계를 만들어 나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형평성의 원칙으로 본다면 미국이나 러시아를 비롯한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가와 중국, 이스라엘, 일본과도 우리는 일체의 여행이나 접촉을 금지하고 국교를 단절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인류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반핵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표현된 것이며 요사이 새롭게 돌출된 것이 아닌 이미 수년간 지속되어 오던 문제입니다.

핵문제를 가지고 민간교류를 전면 유보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러한 때 일수록 민간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고 통일을 위한 대화를 더욱더 많이 가질 때에만 핵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취임사를 통해 "어느 통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이 북한의 핵문제 또한 철저하게 민족의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에서 풀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청년학생들의 자주교류를 허용해야 합니다. 현 정부가 과거의 군사독재 정권과 다른 문민정부라고 자처한다면 민족통일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 처음이 바로 남북한 긴장해소이고 민간차원의 자주교류입니다.

1천 5백 전대기련 소속 기자들은 방북취재 불허에 관한 장관님의 구체적인 입장과 통일전망을 직접 면담을 통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통일의 걸림돌이자 반통일을 위한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문제, 남북긴장해소를 위한 팀스피리트 훈련 전면중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남북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방침 등도 함께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민족은 기필코 통일을 이루고 말것입니다. 어떠한 난관이 닥쳐오더라도 굳하지 않고 통한의 철조망을 걷어버릴 것입니다. 외세의 지배가 없고 전쟁의 위협이 없는 더이상 민족이 대립하지 않는 하나된 민족, 하나된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말입니다.

전대기련 1천 5백여 기자들은 장관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1993년 11월 1일

우리민족은
기필코 통일을
이루고 말것입니다

자주교류를
전면 허용하라!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장남대학보사 장대신문사 강릉대신문사 건대신문사 경남대학보사 경대학보사 경북대신문사 경북산대신문사 경산대학보사 경상대신문사 경성대신문사 경원대신문사 계명대신문사 고신대학보사 공주교대신문사 공주대신문사 곽동대신문사 광운대신문사 광주교대신문사 광주대신문사 교원대신문사 국민대학보사 군산대신문사 금오공대신문사 단대신문사 대구교대학보사 대신대신문사 대전공대신문사 대전대신문사 대학주보사 덕성여대신문사 동대신문사 동국대신문사 동덕여대학보사 동아대학보사 동의대학보사 명지대신문사 목원대신문사 배재대신문사 부대신문사 부산공업대신문사 부산교대신문사 부산여대학보사 부산외대신문사 상명산업대신문사 상명여대학보사 상주산업대신문사 상지대학보사 서강학보사 서경대학보사 서울산업대신문사 서울신학대학보사 서울여대학보사 서원대신문사 성대신문사 성심여대학보사 성심대학보사 성의학보사 세종대학보사 수대학보사 수원대학보사 숙대신보사 순천대신문사 숭실대학신문사 시립대신문사 아주대학보사 안동대신문사 여수수대학보사 연세춘추사 연원학보사 영남대신문사 외대학보사 우석대신문사 울산대신문사 위대신문사 고대신문사 이대학보사 인제대신문사 인천교대신문사 인천대학보사 인하대학신문사 용인대 신문사 전북대신문사 전북산업대신문사 전주교대신문사 전주대신문사 제주대신문사 조대신문사 중대신문사 창원대신문사 청대신문사 청주교대신문사 충신대학보사 추계예대학보사 춘천교대학보사 충대신문사 충북대신문사 한국관광대신문사 한남대신문사 한대신문사 한림학보사 한성대신문사 한성신학대학보사 한신학보사 항공대학보사 해양대학보사 호대신문사 호서대신문사 홍대신문사 효대학보사 전대신문사 대구대신문사 목포대신문사 서울교대학보사 순천향대신문사

# 지역 조직화로 민민운 강화

지역시민운동과 부문운동은 통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사진 : 길>

## 지역기반 민중이익 대변

## 정치적 전망 분명히

## 부문 · 지역 시민운동 조화

현재 시민운동은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크게 부상되고 있다. 이론적 측면은 동구 몰락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시민과 시민사회의 개념,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관계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진개되기도 하였다. 즉 시민운동의 성격규정에 있어 기존의 민중운동적 관점에서의 비판과 이에 대한 반비판 등으로 전개되었으며 올 해 가을 '학술단체협의회' 정기세미나에서는 시민운동론이 토론주제로 상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론진영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지난 여름에 있었던 전국연합 대의원대회에서는 날면투쟁 기조를 정리한 '현 정세와 우리의 입장'에 삽입된, 시민운동에 대한 인식의 입장을 놓고 토론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론과 실천, 양 진영의 시민운동에 대한 토론과정을 지켜볼 때 몇가지 중요한 점이 노출되었다.

### 민중운동을 강화시키는 역할

첫째로, 기존의 민중운동론의 관점에서 시민운동을 비판한 이들의 논리전개를 살펴 볼 때 진보적 시민운동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물론 시민운동하면 정실련운동을 연상하는 분위기에서는 당연한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는 시민운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이들에게서도 읽부느낄 수 있다.

둘째,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을 대립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물론 보수적 시민운동에 대한 민중운동진영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만 하나 나아가 진보적 시민운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커다란 인식적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이러한 민중운동진영의 오류는 실천적인 진보적 시민운동을 접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오류이다.

기존의 민중운동진영에서는 이미 지역 주민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단체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부문운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현재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활동 또한 활발하다. 바로 이러한 진보적 시민운동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시민운동을 민중운동과 배치되는 운동으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천적 측면에서의 진보적 시민운동은 결코 민중운동과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민중운동을 강화시켜 주는 측면이 크다.

일례로 지역이나 부문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에는 합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 합법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은 시민운동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다. 또한 행정기관과의 대응에 있어서 혹은 여론을 형성하고 집약시키는 활동 또한 시민운동에 적합한 영역이다. 즉 민중들의 이해를 대중적으로 수렴하고 확산하거나 합법적 대응을 하기에 시민운동은 적합한 운동형태이다. 더 나아가 합법적 대응이 벽에 부닥칠 때 투쟁을 조직할 때에도 시민운동은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는 물론 진보적 시민운동일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 진보적 시민운동에 대한 인식 필요

진보적 시민운동은 제 계층들의 연대전선을 확보하는 데에도 적합한 운동형태이다. 일례로 동두천지역의 경우 민주시민회의 말을 빌려 '우리 쌀(농산물) 지키기 범국민 대책본부 동두천시 지부'를 지난 10월초 전남 장흥군에 이어 결성하였다. 전국 시군지부로는 두번째인 동두천시 지부에는 지역의 12개 노조, 농민, 시민, 학생 조직이 참여하였는데 중간성격의 시민모임도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와 같이 진보적 시민운동의 존립근거는 분명하며 실천적 의의도 정립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진보적 시민운동에 대한 인식을 바로하고 실천 전략을 함께 할 단계에 이르른 것이다.

### 지역 민중계급의 이익을 대변 해야

현재 우리 사회에는 시민들 스스로가 나서야 할 사회적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예를 들면 주택문제, 환경 · 공해문제, 교통문제, 교육문제에서부터 정치개혁문제, 지역행정문제, 이외에도 여성 · 아동 · 노인 문제 등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은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며 일반 시민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시민운동이 가야할 길 ③**

글순서

1. 남한 시민운동의 역사와 사상적 배경
2. 경실련의 시민운동 고찰
3. 시민운동이 나아갈 길

이러한 우리 사회에서 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은 괴해 당사자들인 시민들이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때 풀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시민들의 자주적인 대안만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보적 시민운동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개선운동에서부터 정치적인 문제까지 폭넓게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개입과정에서 진보적인 운동역량은 자신들의 기반을 확보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향후 진보적 시민운동이 나아갈 길에 대하여 정리해 보자.

첫째, 진보적 시민운동은 지역을 기초로 노동자, 빈민, 농민, 중산층 등 민중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선적 운동형태를 가져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은 협소한 단위 사업장을 벗어나 지역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이럴때 노동운동은 지역에서 실질적인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게된다. '노총'이 '정사협'을 통해서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지금 민주노조세력들이 시민운동을 방기할 이유가 없다. 민주노조진영이 지역의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할 때 시민운동 또한 진정한 건강성과 진보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수적 시민운동을 견제해 낼 수 있다.

### 부문운동과 지역시민운동 연대필요

둘째, 부문운동과 지역 시민운동의 통일적인 사업진행과 사안에 따른 과감한 연대의지가 필요하다. 서울 지역의 경우를 보면 진보적 시민운동의 가능성은 부정하다. 그러나 서울 지역의 현재 진행중인 진보적 시민운동은 부문과 지역이 심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

즉 부문운동은 상당히 발달해 있으나 이를 전체 서울 지역 시민운동으로 전환시켜내는 데에는 미흡하다. 일례를 들어 보자. 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서울지역의 부문, 지역 단체들이 통일적으로 한다면 그 파급력과 영향력은 대단할 것이다. 또 그간 축적된 부문운동의 전문적 역량은 이 운동을 전개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낮은 차원의 생활운동으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문과 지역 시민단체들이 통일적으로 행사를 치루어 낸다면 직거래 장터 같은 생활운동은 시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끌어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낮은 차원의 생활운동도 대학가 중심으로만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볼 때 답답할 같은 것을 느낀다.

민중운동의 커다란 역량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적 사업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서울지역 운동의 상황은 바로 부문과 지역단체들간의 통일적인 사업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셋째,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들은 분명한 정치적 전당을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95년 단체장 선거를 앞둔 지금 지역과 부문의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들은 각지의 분야를 개발하여 정책을 만들어 대중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아가 개혁적이고 대중적인 정치세력으로의 대안을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시민운동은 자신들의 운동을 구체적으로 완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진보적인 시민운동이 나갈 길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 보았다. 이제 진보적 시민운동의 의의와 가능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민중운동진영에서 사리져야 한다. 지금 민중운동진영에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보수적 시민운동을 퇴진시키는 것이다.

이 교 정
〈동두천 민주시민회 의장〉

---

그때 그사건3

## 금강산댐과 애학투련

분단 후 48년 동안 가장 효과적인 통치이데올로기는 '반공'이었다. 정권은 일상적으로 '북괴', '남침', '북의 사주', '혼란 조장'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위기에 몰릴 때마다 '북괴의 위협'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85년 개헌요구가 끓어 오를 때 발표된 '금강산 댐', 87년 대선 직전의 'KAL기 폭파', 92년 대선 전에 생긴 '남부당 사건'을 비롯한 각종 간첩사건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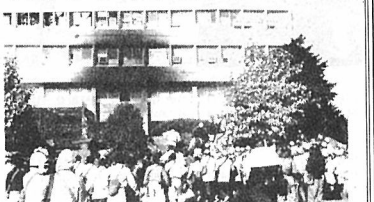
그중 금강산댐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안기부가 조작했음을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금강산 댐이 시국전환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당시 그것으로 인해 희생되었던 이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86년 안기부가 금강산댐에 대해 발표할 당시 정국은 그해 초부터 시작된 '직선제 개헌 투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였다.

3월 11일, 신민당에서 추진한 '개헌추진위원회 서울지부 결성대회'를 시발로 해서 '5.3 인천투쟁'으로 '반미'와 '반독재'에 대한 민중들의 뜻이 모아지고 있었다. 이에 미국과 전두환 정권은 우기 모면식의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면서 민주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계획한다. 이 탄압을 거리는 연막장치가 바로 금강산 댐이었다.

### 위기정국 돌파카드 '반공'

'금강산 댐' 발표후 유혈진압·1천2백여명 구속



86년 10월 28일 1시, 건국대에서 전국 29개 대학 학생 2천여명이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이하 애학투련)' 발족식을 거행하였다.

3시 20분경 부터 1천 5백여명의 경찰들이 최루탄을 쏘며 밀려들었고, 학생들은 각 건물로 피신해 농성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나흘동안 단수, 단전된 상황속에서 라면 하나로 버텨야 했다. 학생들을 건국대 안에 가두어 놓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금강산 댐에 대해 발표했다.

당시 안기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북한이 소양강댐보다 10배나 큰 규모인, 저수량 2백억톤의 댐을 2년만에 건설해서 88올림픽을 전후해 수공하려 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서울이 3분의 1이나 잠겨 도시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다.

을 국정감사에서 밝히진 바에 따르면, 안기부가 금강산댐의 최대 저수량이 70억 톤이라고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2백억톤으로 늘이라고 했으며, 평화의 댐 건설을 발미롯 엄청난 성금을 모집하였다.

건설기간인 2년도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금강산에서 1백 50억톤 규모의 댐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17년이 걸려서야 완공되는데 불과 2년만에 건설하여 곧 쳐들어 올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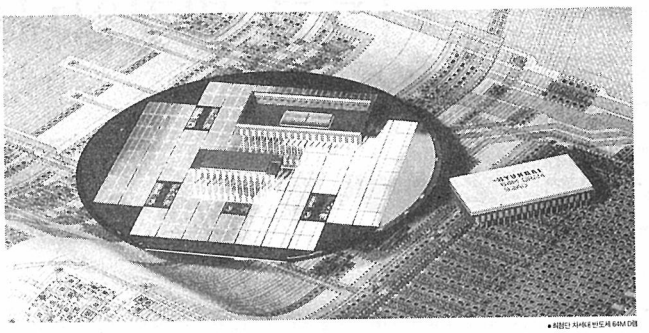
건국대에 갇힌 학생들을 '친북한 공산혁명분자'로 모는 것과 함께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엄청난 사기극을 터트려 놓고는, 바로 다음날인 31일 경찰은 대대적인 진압작전에 들어갔다. 작전 이름 '황소 31 일제작전', 헬기와 소방호수까지 동원하여 최루탄, 최루액, 쇠파이프를 난무하며 광기어린 유혈진압을 한 것이다.

이른바 '건대 애학투련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이다. 이날 하루 1천 5백 25명의 학생들이 연행되었다. 그 중 1천 2백 9명이 구속되었다. 단일 사건 구속자수로서는 세계 최고의 기록이었다. 금강산댐을 이용한 공포분위기 속에서 계속하여 '운동권'을 잡아들여 조직사건을 날조하면서 '운동권 씨말리기'를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금강상 댐 조작사건'은 그 당시에는 광폭한 탄압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투쟁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학생운동의 강인함을, 지금에 와선 꼭 진실은 밝히 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의미로 남아있다. 〈사회부〉

다음호에는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사건'에 대해 실립니다.


기술의 現代
세계의 現代




■ 최첨단 자동화 반도체 64M D램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었습니다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제, 現代는 변화하는 시대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며
'기술의 現代, 세계의 現代'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첨단기술 개발과 수출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과감한 경영 혁신을 이루어가겠습니다.

**意識 改革**
시대는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도 확실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現代는 3D 기피 현상을 타파하는데 앞장서며, 줄여진 주기적인 현장 근무로 공동체 의식과 상호 신뢰의 풍토를 조성하고 근검절약의 기업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尖端技術 開發**
첨단기술 개발로 부가가치 높은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現代는 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에서 무공해자동차, LNG선, 64MD램 반도체의 개발성과를 올리며 지금도 17개사, 28개 연구소의 5천여 연구진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精誠과 品質**
세계를 누빌 초일류제품 – 그것은 마무리작업까지 최선을 다하는 생산에서 비롯됩니다.
현재의 기술로도 정성만 들인다면 수출을 2배로 늘일 수 있습니다.
現代는 불량률을 줄이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분트 하나를 조이는데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輸出 增大**
자국보호 우선의 치열한 경제 전쟁시대 – 現代는 수출을 통해 경제만전을 일궈갈 수 있도록 선진국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간산업에서 미래 첨단산업까지, 18만 現代人이 하나로 뭉쳐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서 신경제 건설을 이룩하겠습니다.

現代

◇제17차 모의유엔총회 내용정리

# 급변화된 세계속의 UN 제구실 찾기

## 선진국 대변인 탈피 · 힘의 균형 이룩
## 제3세계 상임이사국 진출 필요

급변하는 오늘날의 국제정세 속에서 국제연합(UN)은 세계평화를 위한 위상의 제정립과 역할의 제인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21세기 유엔의 역할과 평화기능'이란 주제로 지난 2일(화) 오후 6시부터 한국교회 1백주년 기념관에서 제17차 모의유엔 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탈냉전과 냉전의 다극화라는 국제정세 속에서 유엔의 역할변화의 필요성과 그것을 위해 풀어야 할 여러 과제들을 학생들에게 알리고저 노력했다.

1959년 '유엔 군축문제'라는 주제로 1차총회를 가지며 시작했던 모의유엔 총회는 상황상황마다 세계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들을 선정해 거의 매년 총회를 개최해왔다. 유엔 총회라는 독특한 형식을 도입해 각 나라이로 발언을 하는 특징을 가지는 모의유엔 총회는 세계 각국의 언어를 공부하는 본교의 특징을 잘 살린 최대의 학술행사로 뿜히고 있다.

이번 총회의 형식은 사무총장의 의제제안으로 시작해 17개국 대표의 발언이 이어지고 의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끝을 맺었다.

내용은 크게 현재 국제정세의 원인과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분석, 21세기 유엔의 역할과 평화기능을 수행키 위한 과제로 나뉘어 졌다.

위 내용에 의하면 현재 세계정세의 변화는 소련의 붕괴로 인한 미·소 양대국간의 긴장완화와 동구권의 몰락, 지역간의 경제협력의 강화에 기인한다. 이러한 냉전의 종식으로 강대국간의 전면적인 전쟁위협은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민족·종교·경제적 이익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이로 인한 각 국가들의 군비경쟁으로 지역분쟁의 위험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선진국들의 경제블럭화와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약소국들의 주권이 무시되는 경향이 짙어 짐으로써 남·북대립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의거해 유엔의 문제점과 극복과제는 크게 평화유지활동과 유엔 체제개편문제의 두가지로 이야기 되어졌다.

캐나다는 "인종간의 분쟁, 내전이 세계평화와 안전의 제1위협 요소"라고 말하고 "지역분쟁 타결이 세계평화 유지의 선결과제"임을 강조했는데, 이렇듯 늘어나는 지역분쟁의 해결을 위해 평화유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무력보다는 대화에 의한 해결방식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역적 집단안보체제의 강화에 찬성하였다.

북한은 "경제블럭화 등에 의한 남·북 블럭형을 해소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하고 "제3세계 국가들의 지역단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야한다"고 지역안보체제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독일과 일본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문제와 관련한 안보리 체제개편 문제였다.

나이지리아와 북한은 "상임이사국의 지역안배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서방 일부국가들의 의견만 대변해주는 구조적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며 세력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되길 촉구했다. 또 콜럼비아는 "5개 상임이사국은 거부권행사의 절반을 유엔 신회원국 가입봉쇄를 위해 남용하며 강대국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독일과 일본은 경제대국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통해 현재 유엔의 심각한 재정난을 해소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으로 가입을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인도는 "온 인류가 힘의 불균형을 미해결로 남겨둔 채 유엔의 기능이 유용하고 조화롭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며 독일과 일본의 상임이사국 가입을 세계가 또다시 선진자본 국가에 의해 움직여 질수 있다는 명목으로 반대했다. 또 인도는 해결방안으로 "제3세계 국가가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제시된 유엔의 과제로는 탈냉전 이후 세계의 역량을 인류공영·공존을 위한 환경, 노동, 인권 문제에의 과감한 투자로 이어주는 교량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오염 문제, 동유럽과 아프리카 등으로부터 이동하고 있는 난민문제, 마약문제 등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은 "동서냉전의 종식과 함께 유엔은 취약 및 주변 계층의 사회통합 증진, 빈곤해소와 완화, 인적자원의 투자, 사회적 응집력 강화 등 사회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결의문 낭독에서 의장은 "현재 여러 문제점을 위한 유엔활동이 세계각국의 이익관계 대립과 재정난 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결론짓고 5가지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21세기를 위한 헌장개정 및 안전보장이사회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지역분쟁 해결을 위한 평화유지활동강화 △유엔기구의 효율화를 위한 총회와 사무총장 역할강화 △재정난 해소를 위한 노력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예방외교 노력.

이번 제17차 모의유엔 총회는 국제적 상황에 따른 각 국가의 이해를 잘 반영하고 유엔의 문제점을 다각면으로 고찰함으로써 대략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잘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총회에서 발언만 하는 형식적 제한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고민과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김민홍 기자〉

이번 모의유엔총회에서는 UN의역할과 평화기능에 대해 17개 국가대표가 발언했다.

# 이 책

유난히 역사책의 등장이 많은 때이다. 혹자는 사회가 혼란하고 사상의 중심이 흔들릴 때일수록 역사를 돌아보게 된다고 말한다. '과연 사상이 혼재하는 시기인가'에 대한 물음은 유보하는 것이 나을 성 싶다.

해방, 분단, 전쟁, 반공독재, 4·19, 5·16, 유신, 광주, 87년 6월항쟁, 3당합당, 그리고 문민정부…. 50여년의 한국현대사는 그야말로 숨가쁜 행로를 거듭했다. 잠시도 쉬지않고 계속되는 '반역사적'사건들은 민중을 깨어나게 했고 그 거대한 벽에 부딪쳐 싸우게 했다.

그러나 "역사는 역사가들의 적적한(?) 선택과 배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E·H 카의 말을 구지 다시 꺼내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워온 현대사가 '왜곡'과 '편파'의 집대성임을 부인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왜곡된 역사의 바로잡기 움직임은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바로보는 우리역사'등의 결정체를 얻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적 현대사 역시 왜곡된 역사를 바로하고 재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비관적인 성향을 띠지는 않았는가 라는 우려도 있다.

## 객관성에 바탕둔 현대사 평가서

그러한 문제제기 이래 한국정치연구회는 '한국현대사 이야기주머니'(녹두)를 펴냈다. 현대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중요한 73가지의 사건을 통해 현대사를 이해하게 했다. 가급적 주관적 판단과 단언적 평가를 배제하고 '관단의 몫'을 독지에게 주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진보적 역사서와 차별성을 보인다.

모두 세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방직후로부터 92년 대선까지의 역사를 다루었다. 전체는 7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신탁통치문제, 9월총파업 등 해방정국의 사건을, △제2부는 38선분쟁, 거제도 포로수용소 폭동사건등 한국전쟁과 관련된 사건들을 서술했다. △제3부는 진보당사건과 4·19학생등 반공독재와 민중의 저항을, △제4부와 제5부는 산업화, 군부독재와 민주화운동이 전개된 박정희 정권시기의 사건들을, △제6부는 광주민중항쟁과 87년 민주화항쟁등 제통장한 군부독재와 이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건을, 마지막으로 △제7부는 6공화국의 주요 사건들로 구성 되었다.

특히 아직까지 미지수로 남아있는 여러 사건들에 대한 관단의 근거들을 제공한다. 또한 87년 대선과 김영삼의 3당합당, 통일국민당의 창당, 그리고 92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비교적 최근의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 결과를 지세히 서술해 6공화국의 조심스런 평가를 던진다. 제도권뿐 아니라 6공시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결성이나 89년 방북사건, 91년 5월투쟁등 민민운진영의 활동도 그 성과와 오류를 서술해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돕는다.

사건별 구성과 객관적 필체로 소모임의 세미나 교재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전의 역할도 가능하다.

<이옥선 기자>

# 학/술/단/신

## 주한EC대사 강연회를 통해 본 우리의 과제

80년대 후반 탈 냉전화 시대의 전개로 정치와 경제영역의 상호작용이 커지면서 각국가들은 인접국가간의 상호 이익을 위해 정치·경제적으로 협력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현재 세계는 유럽·북미·동아시아의 3대 경제권으로 다극화되는 양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경제적 지역주의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간의 통합과정과 이로 인한 제국가들의 이익은 본단국으로 남아있는 우리에게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교 대학원 서구지역 연구학과는 지난 2일(화) 오후 4시 대학원에서 일정통합에 성공하여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EC의 주한대사 길로스 아노이(Gillos Anouil) 씨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아노이씨는 "유럽경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11월 1일 발효됨으로써 EC는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강연회의 시기적절함을 강조하였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시장의 가장 큰 장벽이 되어왔던 화폐와 정치부문의 통합을 위해 91년 12월에 인준됐는데, 아노이씨는 조약의 발효가 가지는 의미를 △유럽경제 화폐 공동체 형성 △4대 경제요소(상품, 자본, 인력, 서비스)의 상호왕래 가능 △공동외교 안보정책 강화 △국내적인 내부부 부분에서의 협력기능 등의 4가지로 설명했다. 특히 아노이씨는 "유럽경제 화폐공동체 형성은 북미의 NAFTA나 동아시아의 APEC과 EC를 구분짓는 지표"라고 강조하고 "이 조약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사회자는 "EC의 모습을 통해 우리와 EC와의 관계, APEC의 전망, 앞으로 '우리의 대응방안까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연회의 의의를 밝혔다.

## 경인사련 학술 심포지움 아주대에서 열려

'고조선의 위치에 관한 남북의 견해'에 대한 학술심포지움이 경기·인천지역 사학과 연합(이하 경인사련) 주최로 지난 5일(금) 오후 2시 아주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올해로 제11회를 맞는 경인사련 학술심포지움은 본교와 수원지역에 있는 아주대, 성심여대, 경희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아직까지 정의 내려지지 않아 다양한 학설이 거론되는 고조선의 위치와 영역에 관하여 논의 되었다.

특히 북한학계가 주장하는 요동중심설을 설명해 줌으로써 하나의 역사를 바라보는 남북한의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를 밝혔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양한 사료를 검토하여 남과 북의 제한된 지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 언어학과 학회 '도토리' 공개토론회 열어

오는 11일(목) 오후 6시 대학원 104호에서는 '1995. 흔들리는 실명제'란 주제로 제4회 이문공화국 모의 국무회의가 열린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행정학과 학생회는 처음 실시할 때의 의도를 벗어나고 있는 실명제의 문제점을 찾아 비판하고 대안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 제4회 모의국무회의 실명제문제 다룰 예정

'도토리'에서는 공개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세대라고 생각하느냐' '정치에 대한 관심도'등의 설문조사를 했다.

토론은 '정치' '통일' '선후배 관계' '대학의 의미'등 각 주제별로 진행되는데 중간에 참가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황극도 준비했다고 한다.

<고침>

615호 인도여과 학술제 기사 중 '리오'를 '리오'로 바로 잡습니다.

## 계절진폭제

**소금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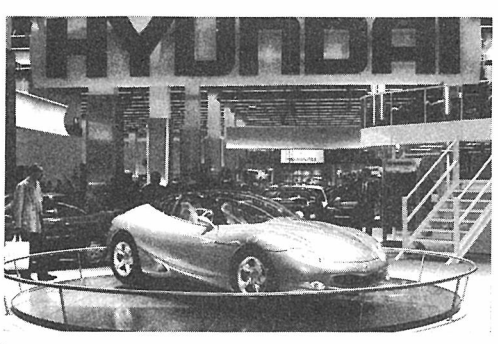
계절진폭제란 계절에 따라 쌀값을 변동함으로써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여 농민들의 실질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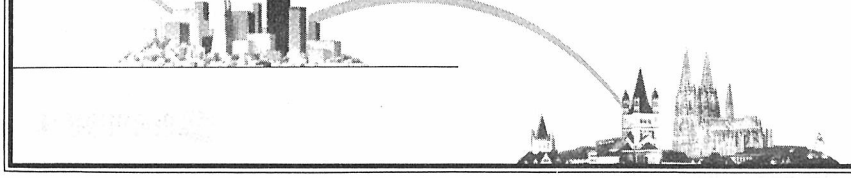
정부에서는 신양정제도에 계절진폭제를 도입하여 단경기(추수하기전, 쌀값을 가장 비싸게 받을 수 있을때)에 쌀값은 7%까지 인상하겠다고 했지만(겨울에는 5%)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추수해서 쌀을 가장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그 다음해 추수바로 전까지 쌀을 보관하여 수매가보다 7%를 더 받는다 해도, 수매가에 바로 팔아 시중금리가 평균 10.5%인 은행에 저금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관료, 감모분(보관중 손실된 양)까지 감안한다면 변동율이 최소 15%는 되야 민간유통이 가능한 실질적 제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쿄에서 디트로이트로…다시 프랑크푸르트로!



해외사업부 수출상품개발팀
조 용 정

"그곳에선 세계 자동차들의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도쿄, 디트로이트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자동차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수 있었습니다.

세계 자동차들과 당당하게 겨루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자랑스런 모습까지도.
세계적인 자동차회사의 수출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준
세계 3 대 모터쇼!

높은 급여, 복리후생 다 좋지만
큰회사에서 생활하고 있다는것
그것이 얼마나 큰부가가치가 있는가를
깨닫게 해준 멋진 기회였습니다.
입사 3 년차의 사원에게 이런 기회와
도전에의 의욕을 불러 일으키게 해준
나의 회사, 현대자동차.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

미국의 통상 압력이 강해지면서 금융시장 개방의 범위는 당초 계획보다 더 커진 가능성이 있다.

□금융시장 개방의 문제점

# 우려되는 국부 유출

## 정치·경제 불안, 자본이탈 초래 우려

## 금융기관의 체질 개선 추진돼야

최근 미국 재무차관보가 '제 3단계 금융시장 개방 계획'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삽입하도록 요구하는 등 금융시장 개방을 확실히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89년 미국과의 금융문제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한미 금융정책 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개방의 구체적 청사진 제시를 약속한 바 있다.

금융시장 개방론자들은 "자율화와 개방은 금융개혁의 양면이다. 금융시장 개방이 이루어지면 금융기관의 국제화가 도모되고, 금융·자본시장의 규모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금융시장 개방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정치 및 경제적' 여건이 불안정할 경우 자본의 대규모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빠른 금리나 환율이 경직적인 때 자금의 유출입이 커서 통화관리 곤란 등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에 심각한 골치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종합화 경쟁과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대규모 자본을 가진 외국 금융기관에 의해 장담할 수 없는가 하는 우려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자금이 들어와 막대한 이자 수익 및 자본 이득을 획득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상당량의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개방은 크게 금융거래의 개방과 금융산업의 개방으로 구분된다. 먼저 금융거래의 개방은 외화 자유화와 자본 자유화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외환자유화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2년 9월 현물환 거래의 대상 기업이 대외 거래실적이 있는 모든 기업으로 확화되는 등 경상거래에 대해서는 실수요원칙이 완화되었고 환율의 하루 변동폭도 상하 1%로 확대되어 과거에 비해 환율의 변동성이 심해졌다.

한편 자본 자유화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는 증권시장 개방이다. 주식시장이 92년에 개방되어 해외로부터 많은 양의 주식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93년 중 해외로부터의 주식투자용 자금 유입은 연간 50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자금 유입은 주식 가격을 상승시켜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의 통화관리에 부담을 주고 원화환율을 평가절상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수출회복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 향후 증권시장의 추가개방이 문제되는데 외국인 주식투자의 허용한도 확대와 채권시장의 개방이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향후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해지면서 금융시장 개방의 범위는 당초 계획보다 더 커진 가능성이 있다. 수출회복이 가시화되고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이 커지 시장개방의 압력이 커지는 경우 우리나라 정책당국은 금융시장 개방을 다소 가속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금융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진다면 이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기반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즉, 금리자유화의 조속한 추진, 합병을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은행의 부실 채권 문제 해결, 금융기관의 경영자율화,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 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임 송 학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원>

북한 핵과 남북 관계

# 특사교환 거부 '항의성 충고'

## 남북대화 핵심열쇠, 핵문제 섣부른 강경론의 대두 경계

남한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북·미 3차 회담의 전망은 밝다.

지난 주에 남북 정상회담을 엄두에 둔 특사교환 실무 접촉을 북한측이 거부하고, 한·미 연례 안보협의 회의를 통해서는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유보, 핵문제 공동대응 등의 결정이 이뤄졌다.

91년 부터 제기된 북의 핵문제가 다시금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은 듯 하다.

북의 핵문제에 있어서 남한 당국지의 입장보다는 미국의 입장 변화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전쟁의 실질적 당사자일뿐 아니라 정전협상에 조인한 북한의 실질적 적대국이기 때문이다.

북의 핵문제는 91년 미국이 핵안전 협정 서명과 국제원자력 기구(IAEA) 의 사찰수용, 영변 미확인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실시 등의 압력을 가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남·북 간의 합의서가 서명되기 전인 지난 91년도는 '핵안정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 핵개발 의혹의 '유일한 근거'였다.

92년 1월 핵안전 협정에 북한이 서명하고, 사찰을 수락함으로써 '유일한 근거'는 사라지고 평화무드가 정착되는 듯 했다.

실제로 92년 5월부터 93년 2월까지 6차례의 사찰이 이루어졌고 사찰결과는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핵무기 개발에는 미치지 못하는 단계이며, 미국의 주장은 일부분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사찰 결과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군사시설을 포함하는 특별사찰을 93년 2월 국제 원자력 기구의 결의안으로 채택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은 "비지를 빚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등 다시금 핵문제 해결이 경색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중국 베이징에서 하워급 외교관의 접촉이 이루어 지고 7월 19일에는 강석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과 갈루치 미국 국무차관보의 2차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전개과정을 엄두에 둔다면 북한의 이번 특사교환 실무접촉의 거부배경을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로 표현된 국제공조체제의 포기를 전제로 한, 대국의 이익에 맞서 민족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북한당국의 의지를 표명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으리라는 것이다.

둘째로는 권영해 국방장관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전쟁위협에 대한 강력한 시위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해공방이 시작되면서 부터 주장해 온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이 유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으므로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거부를 표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특사교환 실무접촉 거부는 남북대화에 대한 '전면적 파괴'가 아닌 미국과 남한 정부에 대한 '항의성 충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번에도 확인했듯이 남북대화의 핵심 열쇠는 핵문제이다.

핵문제가 어떻게 어느 시기에 타결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냉각기류에 휩싸이느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시기의 문제는 11월 20일을 전후해서 진행될 북·미 고위급 회담과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지나봐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현재 한 군데에 대한 전임을 목표로 단행했던 소말리아 파병에 대한 국내 여론의 심각한 반대에 직면했고 이는 최근 있었던 3개의 지자주 선거에서 패배로 확인되었다. 국내에서의 이러한 상황은 미국 정부로하여금 섣불리 무력행사를 할 수 없게끔 하는 잠금장치가 된 것이다.

한편 북한도 임시사찰은 불하한다는 애초의 태도에서 한발짝 물러나 3개의 핵시설에 대한 통상사찰과 4개 시설에 대한 임시사찰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분단조국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죄악이다.

민족대단결의 입장에서 핵문제가 원활히 해결된다면 남북대화의 전망은 밝다.

섣부른 강경론의 대두를 경계해야 할 것이며 화해와 평화정책의 노력으로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 한반도 비핵지대화, 평화협정의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남과 북이 합심할 때 통일의 날은 성큼 우리 앞에 나설 것이다.

박 광 우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공동의장 윤영규

# "합의서 실천과 비핵화 공동선언에 충실해야 한다"

—북한이 남북회담을 거부했다는데

=남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다. 남북합의서에 명시된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문제를 주체적으로 풀지 못하고 미국이 전권을 휘두르도록 방치해두었다. 핵문제를 UN이나 IAEA로 끌고가 국제적 압력을 넣는 모습을 북한이 비람직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북·미 3차 회담의 전망은

=북한은 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구함으로서 핵무기 개발 포기의 확신을 미국에게 주고 있고 조·미 수교를 원하고 있다. 미국 역시 북한의 핵투명성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서로의 이해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적당한 타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공방 과정에서 남한 당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이념과 체제보다 민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민족적 관점을 가지고 '합의서 실천과 비핵화 공동선언'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학생들의 지주교류 사업이 거의 차단되고 있는데

='핵문제 우선 원칙'으로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효재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한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통일원이 완전히 의지를 상실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북·미 회담 이후에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학생들의 주장에 일괄적 반응이 있는 정부를 설득시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김남중 기자>

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파의 흐름을 막는 山이라는 장벽 —
한국이동통신이 기술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산도 많고 골도 많은 우리나라 —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지형에서의 이동통신은
선진국의 경험도 별 도움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산에 가로막혀 가닿지 못하는 전파 —
한국이동통신 삐삐 012는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첨단 이동통신 기술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자유로운 무선호출을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삐삐 012
한국이동통신

노래속의 여성—<2>홍등가 여성상

# 외로울땐 날 보러와요

##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한탄하는 불법 사랑

우리 나라에 매춘부라는 직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혹시 매춘이라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만약 매춘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다면 돈을 주고 성적 서비스를 거래하는 이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의 하나로 취급될 것이고, 그 가격 역시 일종의 '권장소비자가격'처럼 정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매춘행위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매춘의 존재는 공공연하고, 거기에 드나드는 남자들 역시 자신이 범법행위에 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중가요에는 꾸준히 매춘여성, 홍등가 여성의 모습이 등장했다. 물론 공연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당당히 통과해서 말이다. 사회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형상화에 대해서는 그토록 철저하게 심의하는 공륜이 왜 이러한 노래들을 통과시키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일제시대는 그나마 당당했다. 권법이라는 기생조합과 부설 기생학교가 존재할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당당하게 기생이란 단어가 가요에 등장한다. '연지와 분을 발리 다듬는 얼굴 위에 / 청춘이 바스러진 낙화 신세 / 마음마저 기생이란 일홈이 원수다'(화류춘몽), '거리의 핀 꽃이라 푸대접마오… 사랑에 속았다오 돈에 울었소'(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이밖에도 드라마 '아들과 딸' 덕분에 유명해진 '홍도야 우지마라' 역시 기생 이야기이다. 이렇게 기생이 대중가요에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대중가요가 여성보다는 남성의 문화로 출발했다는 증거일 수 있을 것이다. 남성들이 자유롭게 연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기생이야말로, 연애를 주 제재로 삼아왔던 대중가요에서는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재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기생의 사랑을 다룸으로써 그 속의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한탄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진다. 자신의 신분이 기생이므로 당당하게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지 못하고 남자의 변심에도 '기생이란 내 팔자가 죄'라고 자신을 자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여자이니까'와 동일한 수동적 여성상의 전형이 되는 것이다.

해방 이후에도 '먼 데서 오신 손님', '단골 손님', '댄서의 순정' 등 홍등가 여성의 모습은 끊이지 않고 등장한다. 일제시대보다 당당하지는 못하나 오히려 더 매혹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심지어 여성이 대중가요의 수용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80년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여성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방미의 빈안가요 '날 보러 와요'도 '외로울 땐 나를 보러 오세요… 언제든지 보러오세요' 하는 가사로 어쩔 수 없이 매춘여성을 연상케했으며, 여고생 시절에 가수로 데뷔해서 유명해진 문희옥의 '사랑의 거리'역시 '여기는 남서울 영동 사랑의 거리 / 사계절 모두 봄봄봄 웃음꽃이 피니까 / 외롭거나 쓸쓸할 때는 누구라도 한번쯤은 찾아오세요'하는 가사가 호객 행위를 연상시킨다. 이런 노래들은 일제시대 가요에서 나타난 기생의 애환조차 드러나있지 않고 완전히 호객행위 같은 향락적인 분위기만 풍기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부정적이다. 게다가 하필 문희옥이라는 나이어린 가수가 소위 '영계'를 연상시켜 더욱 민망하다.

대중가요에서는 이렇게 매춘여성의 모습을 단지 한탄하는 수동적 여성의 전형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남성의 노리개감으로서의 향락성만을 두드러지게 드러낸다. 여기에서 벗어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작품은 50년대 '에레나가 된 순희' 정도가 고작일 것이다. 고향에서 실패 감던 순희가 전쟁통에 양공주가 되어버렸다는 내용의 이 노래는 그런 내용 덕분에 80년대 초까지 민중가요의 목록으로 올라와 있었다.

이 영 미
〈노래 평론가〉

북한 순안 비행장에 첫발을 내리는 순간 황석영

## □방북작가 황석영씨의 아들 황호준군을 만나

## "당신에겐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떨어졌던 것이 가장 큰 형벌이었을 겁니다"

"'분단시대의 작가', 아버님이 늘 당신 스스로를 일컬으시던 말이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중인 작가 황석영의 아들 황호준(중앙대 한국음악과 1)군 역시 '분단시대의 대학생'이다. 그렇다면 '작가 황석영'은 마지막 컴플렉스를 해결한 셈이다. 이제는 남과 북을 아우르는 작품을 쓸것이기 때문이다. 북에 생겨난 독자들을 위해서도 글을 쓸것이므로.

아버지의 방북 동기를 "대중이 잘 아는 '작가'로서 기려진 북쪽을 남쪽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이었어요. 직접 체험하고 '북한 기행문'을 통해 그쪽의 긍정적인 부분과 북한 동포들의 삶을 구체화 시키고 싶었던 겁니다"라고 말하는 호준군은 아버지의 방북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북한에 가겠다고 늘 쉽게 말씀하시곤 했지만, 막연한 확신과 낙관이 아니었어요. 고2였던 저와 어머니, 동생, 그리고 주위분들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에서 황석영씨의 귀국할 때와 재판과정에서의 넉넉한 여유를 보는 듯 했다.

4년간 통일을 실천하는 활동가로 해외에서 동분서주 하면서도 그의 글쓰기 열망은 대단했다고 한다. "당신에겐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었던 것이 작가로서의 가장 큰 형벌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표현의 자유를 잃고 갇혀 있지만 곧 아버님의 손에 펜이 쥐어질 것입니다."

호준군은 요즈음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 일을 돕고 있다. 황석영씨의 방북에서 해외활동, 귀국과 동시에 구속, 재판에 이르는 과정을 한 개인의 일화의 과정에 있었고 그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속의 한사람이었기에 어려운 과정에서도 늘 당당 할 수 있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황군의 모습에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조국에의 동참이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도 역사에의 동참이라 했던 황석영씨의 모습이 또렷이 떠올랐다.

"저 황석영 이라고 하는 작가와 그의 작품들과 지난 몇년 동안의 그의 행동이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일부분이라면 죄와 벌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의 역사로서 그의 행위와 생각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공판에서 재판을 임하는 황석영씨의 심경을 피력한 모두진술의 일부분이다. 지금 그의 아들이 역사의 진리를 믿듯이 그의 순수성과 제도를 초월한 행위는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오미나 기자〉

# 벼랑에선 우리 영화 떠미는 살인행위

□문화논평 —스크린쿼터 축소조치에 대하여

지난달 14일 문화체육부장관은 스크린 쿼터의 40일 축소조치를 내렸다.

'스크린 쿼터제'란 세계각국이 자국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미국영화의 범람을 우려한 영국에서 최초로 시행했고, 우리나라에서는 66년부터 한국영화의 보호를 위해서 '모든 영화관에서는 한국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1백 46일) 이상 상영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만들었으며, 73년 제4차 영화법 28조및 동 시행령 20조 3항에 근거해 시행되오고 있다.

원래 유신치하에서 국가정책·홍보영화(반공영화, 새마을영화)의 의무상영을 위해 시행되고 있었으나 85년의 외화수입 자유화조치와 87년의 미영화직배 허용이후 자생력을 잃어가는 우리영화를 지키는 유일한 제도로 지리잡아왔다.

어쩌면 한번씩 맛보는 외국영화의 과감한 노출과 화려한 몸동작에 매료된 관객들을 보다 진지하고 친숙한 우리영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국책영화를 어거지로 제작해서 외화수입쿼터를 따내는데 급급했던 영화인들, 미국의 통상압력에 떠밀려 이렇다할 대책도 없이 외국영화 수입자유화와 미국영화 직배를 허용한 5. 6공의 문화정책이 현재의 국내영화시장을 미국영화들끼리의 흥행전장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이런 현실속에서 한국영화는 '뿌리 뽑힌 고목'이 되어 1960년대 2백여편을 제작하던 것이 작년에는 96편이 제작되었고 올해에는 제작편수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에 1960년대 중반까지 30여편을 으르내리던 외국영화 수입편수는 작년에 무려 3배 19편으로 폭증했다. 수입(또는 직배) 외화의 홍수속에서 뿌리 뽑힌 한국영화는 자생력을 잃었고 유일한 연명줄이었던 스크린 쿼터의 축소, 폐지 논란 앞에서 휘청대다 못해 거꾸러질 형편이다.

프랑스등 유럽국가들은 영화를 포함한 문화분야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문화적 예외'를 주장하고, 영화제작비 지원, 세제상의 혜택, 보험제도등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국영화 보호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는 스크린쿼터마저 축소, 폐지하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제는 우리영화를 살리는 최선의 방책이 아니다. 진정 우리영화가 자생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라는 외줄만 잡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영화진흥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영화진흥금고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의 펜처캐피탈제도나 프랑스의 소피카제도는 기업자금을 영화에 끌어 들인 대표적 사례이다. 최근 뉴질랜드는 영화개발은행을 설립했고, 캐나다는 영화제작을 지원하는 은행이 있다.

둘째, 영화제작및 상영에 세제상의 감면혜택을 주어야 한다. 일본, 대만,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브라질 등 각국이 영화의 제작·상영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셋째, 영화제작 지원제도가 보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제작비사전지원제도가 부활되어야 하며 기자재의 현대화및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또 해외시장의 개척과 조사연구를 위한 전담부서의 창설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영화법과 동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백 46일의 스크린쿼터제가 지켜져야 한다.

지난달 문체부 장관이 스크린쿼터 40일 축소조치를 내린 것은 예상치못한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한국영화의 제작편수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어 극장이 의무상영일수를 지키기 힘들게 되어 부득이 내린 조치라고 한다. 그런데 이말을 곱씹어 보면 얼마나 비논리적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첫째, 한국영화는 금융실명제라는 돌출변수 때문이 아니라 지난 30년동안 정부의 잘못된 정부의 영화정책 때문에 현재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조치는 직배사및 극장주와 외화수입업자들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한국영화 진흥에 역행하는 반개혁적인 조치이다. 방화제작 부진을 이유로 스크린쿼터를 줄이겠다는 발상보다는 먼저 영화가 제대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이 문민정부다운 정책방향 아니겠는가.

최 준 영
〈스크린쿼터 감시단 감시위원〉

### 우리말의 쓰임새

(246) ~화된→ ~화한

공업화된 사회
'-화'라는 말은 '-되다'의 뜻이므로 '-화 되다'는 같은 뜻의 말을 겹쳐쓰는 '겹말'이 된다. 따라서 '-화하다'로 쓰는 것이 옳다.
공업화한 사회

<서울캠퍼스 동아리 우리말 연구회>


# 제8대 졸업준비위원 모집

제7대 졸업준비위원회에서는 94년도 4학년 학우들을 대표하여 졸업준비 사업을 함께 해나갈 참신한 일꾼을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각 단대별 1명(합12명)
2. 자 격 : 95년 2월 졸업예정자중 근면성실한 자
3. 구비서류 : 자기소개서 1부
   사회진출에 대한 자신의 견해 1부
4. 접 수 : 11월15일~19일
   학생회관 2층 졸업준비위원회
5. 참고사항 :
   졸업준비위원회에서는 취업정보지 및 신문발간, 앨범제작및 반지, 각종 기념품에 관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설명회, 각종 취업 면접 특강 등의 사업을 계획·추진 합니다.

제7대 졸 업 준 비 위 원 회

# 자아성장을 위한 심리검사 및 개인상담

1. 심리검사
   각종 검사도구(성격진단, 자아개념, 직업흥미, 적성진단 등)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고 자기 자신을 좀더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의 종류
○성격진단검사 : 자신의 성격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MMPI : 심리적·사회적 적응에 대한 인성 특징을 평가해 줍니다.
○자아개념검사 : 자신과 주변환경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느낌과 생각을 알려 줍니다.
○직업흥미검사 : 개인이 선호하는 직업적 흥미분야를 알려줍니다.
○적성진단검사 : 잠재능력을 지니고 있는 학문분야, 적업분야를 알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 이용 시간
○적성진단검사 : · 11월 11일(목) 15 : 00—16 : 30 · 11월 16일(화) 10 : 30—12 : 00
· 11월 24일(수) 10 : 30—12 : 00 · 12월 3일(금) 13 : 30—15 : 00
· 검사시간—1시간 30분소요.
○기타심리검사 : 월~금 오전10시—오후 5시까지 항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2. 개인상담
   보다 원만하고 알찬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싶거나,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진로문제, 성격문제, 대인관계, 정서장애, 이성문제 등)에 봉착하였을 대 상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방법 : 전문가와 일대일의 대면관계에서 학생이 안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1회 50분씩 대화를 나누며, 보통 1주일에 1~2번씩 정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상 담 자 : · 박중영 교수님(소장, 취업보도실장)
· 정영륜 교수님(상담교수, 상담심리전문가)
· 신경진(상담부장, 상담심리전문가)
· 한창숙, 정순자, 박교용(상담원, 상담심리전문가)
· 윤현주, 임수현, 양재희, 김혜경(간사, 상담원)
*이용시간 :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장 소 : 학생생활상담연구소(서울, 용인캠퍼스)
—학생회관 2층.

3. 취업 및 유학 정보 자료실
   취업, 유학, 대학원 진학 등과 관련된 각종 문제집과 자료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학생은 언제나 본 연구소를 찾아 옴으로써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한층 더 알차게 꾸며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학 생 생 활 상 담 연 구 소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축소보도

매체 비평

# 절름발이 한국언론 현대판 '드레퓌스 사건'

## '유서대필 사안'에 대해 검찰측 발표에만 집착해 국민여론 호도

언론은 그 규모와 영향력의 강약에 관계없이 공정한 보도와 불편부당의 지세 가 견지되어야 한다. 이런 지세에서만이 올바른 여론수렴과 전달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한다. 그러나 이런 당위성도 특정세력이나 이해집단의 음모와 영향력이 끼어들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 진다.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고 악이 선으로 둔갑하는 조작이 빈번히 일어난다.

91년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당시 언론의 반응은 '전대미문의 사건' 바로 그것이었다. 불안정한 정치상황과 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속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정권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짊어진 공안세력과 부도덕한 정권에 맞선 민주세력간의 도덕성과 정치성이 걸린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공정한 심판지임을 지치한 절름발이 한국언론이 있었다.

지난 10월 11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강기훈씨와 강씨를 유서대필의 진범으로 단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홍성은씨의 양심선언은 이 사건을 세인의 관심권으로 끌어오는 기폭제가 된 한만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현대판 드레퓌스 사건' 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진상이 2년여만에 햇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한거레신문 외에는 모든 신문이 사회면 구석 1단 기사로 축소보도를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양심과 도덕을 사정없이 짓이겨 버리는 또 한번의 폭력을 태연히 지행해 버렸다.

그 당시의 언론보도의 해심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재야세력은 무쟁을 위해서는 분신도 불사하는 좌경폭력세력이고 둘째는 죽음을 부추기는 불순세력이 분명히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단정과 민주운동 세력들이 그 배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이었다. 이런 언론의 초점은 이 사건과 더불어 진행된 검찰 등 공안세력의 대응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유서대필 사건의 원인이 됐던 김기설씨 분신자살의 배후세력 발표가 있기 전날 청와대 비서실장 주최로 열린 치안장관 회의에서 배후세력 예단은 이미 결정되었다. (한거레, 91년 5월 9일자, 투시경)

때마침 서강대 박홍총장은 기자회견(91년 5월 8일)을 통해 '죽음을 선동하는 검은 세력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때부터 언론은 '죽음조종 배후세력의 존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집중보도를 시작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91년 5월 19일자 신문에 미 뉴욕타임즈 보도를 인용, '분신에 배후… 한국에 소문 파다, 국제적 고립된 김일성 정권 지령,가능성', '운동권, 중산층 개입유도 목적일 수도' 등으로 보도하면서 국민감정을 묘하게 자극시켜 나갔다.

결국 연일 터지는 유서대필 보도는 그때까지 정권의 폭력성과 부도덕성에 비판이 쏠린 시선을 일거에 '누구의 필적인가?', '배후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로 몰아가 버렸다.

이런 언론의 배후에는 검찰과 안기부 그리고 정권이 짚요하게 개입한다.

김기설씨가 사망한지 두시간도 채 넘지않은 상태에서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배후를 공개적으로 의심하고 나섰다. 또, 사건 직후 '흰색 점퍼차림의 방조자'라는 한 교수의 목격담(조선, 한국일보, 91년 5월 10일자)은 안기부와 검찰의 작품임이 드러났는데도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나 해명없이 곧바로 필적문제로 넘어가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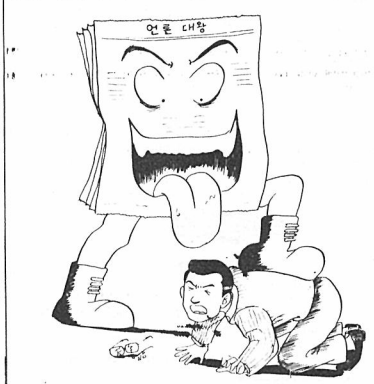
묘한 것은 유서대필 문제가 언론에 크게 부각된 5월 18일은 경찰의 지지로 무산되었던 강경대군의 장례식이 예정된 날이었다. 이를 우연의 일치로만 볼 수 있을까?

언론은 엄청난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서대필사안'에 대해서 객관적 접근과 분석이 아닌 검찰측 보도지료와 발표에만 집착, 국민 여론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 버린 것이다. 그리고 유서필적 공방이 치열할 즈음 운동권에 대한 일대 검거선풍이 일어 무려 1백여명에 대해 사전영장이 발부된 사실은 정치적 위기를 공안정국으로 돌파하려는 정치적 계산과 이를 앞장서 보도한 언론의 합작품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한다.

옛날 신문보도의 몇가지를 살펴봐도 대서특필하던 언론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온 강기훈씨와 검찰의 수사를 뒤집어 버릴 양심선언을 한 홍성은씨의 기자회견 내용을 축소 보도한 과연 어디에 있을까?

문민시대를 맞아 사회 구석구석에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도 언론계만은 여전히 빗장을 단단히 걸고 있다. 금강산댐 건설 보도에서 드러난 한국 언론의 치부가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비관이 생기는 93년 오늘의 언론이다.

〈민주언론운동 협의회 신문분과〉




### 고침

615호 경제학과 김애실교수님이 쓴 명수당에서 빠진부분이 있어 고침니다.

글 속에서 시각적으로 보면, 필자가 감의를 마치고 도서관 연구실로 향하던 중 도서관 5층 휴게실에서 느낀 생각을 적은 부분이 빠짐으로써 필자가 지적하고자 했던 도서관 문제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빠진부분의 내용은 "도서관 게단에는 삼삼오오 짝을 지어 큰 소리로 얘기하는 학생들이 가득했다. 자욱한 담배 연기에 쭉 파묻힌 학생들과 목청 높여 떠들고 웃는 학생들이 가득한 5층 휴게실은 마치 시장 바닥과 다름이 없었다. 누가 이곳을 공부하는 곳, 대학의 심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 솔로구프의 '거위'

평수당 (매水생)

러시아의 상징과 시인이 솔로구프의 우화에 동물들의 자격심사에 관한 얘기가 있다. 거위 차례가 되어 심사관이 '자네 공로는?'하고 물었다.

'저의 8대조 할아버지께서 트로이 전쟁 때 성을 넘어 들어오는 적병을 맨 먼저 발견하여 자칫 위태할 뻔한 성을 구해냈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죠.'

'그건 자네 8대조 할아버지의 얘기 아닌가. 자넨 무슨 공로가 있는가'·말이다.

'제 공로요? 제가 바로 유명한 트로이 전쟁에 공훈을 세운 그 거위의 8대조 직손이라니까요.'

1960, 70년대 외대. 외대인을 아는 이들은 하나같이 그 깔끔한 차림과 세련된 매너를 '트레이드 마크'처럼 말하곤 한다. 우리 고유한 예절의 좋은 점과 구미 에티켓의 장점까지 몸에 익혀 행동하였으니, 동시대 대학이들은 외대인의 '귀(貴)티'나는 모습에 선망의 시선을 보내곤 하였다. 그러나 외대생들은 검치레만 만족하지 않고 계속 실력을 쌓아 이 때부터 '이문동의 하버드대'라는 자부심이 알게모르게 생겨난 것이다.

지금의 외대, 특히 이문캠퍼스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이문동 하버드대의 몇대손졸일까' 하는 생각을 해 보다가 문득 옛 영광만을 노래하는 '거위'생각이 떠 오른 모양이다.

10여년을 넘게 우리는 솔로구프의 '거위'처럼 자격도 공로도 없이 너무 안일하게 세월을 흘려보낸거나 아닌지. 그러다가 80년대의 카오스한 시대 상황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려 나온 거친 행동이 외대 역사의 한 장을 모욕으로 매김질 당하는 지경에 빠뜨린게 아닐까. 그동안은 정말 좁은 캠퍼스에 쉬임없이 울려퍼지는 뽕과리 소리와 화성기의 고성으로 인해 환청에 시달림을 받기도 하였던 것이 쉽을 주위들고 가만히 목례를 한 다음 교실 문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다보면 담배를 피우다가 얼른 뒤로 숨기는 낯모르는 학생 동동 하나같이 몸에 밴 지성인다운 행동들이다.

'밸런타인 데이'나 친구의 생일에 선물을 주고받아야 하고, 아는 교수에게나 정중하게 대하는 겉치레 예절보다는 아프리카인이건, 아시아인이건, 구미인이건 구분없이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예절은 우리 외대에서 배워나가야겠다.

그동안 대학간에 동급을 매겨 놓았던 우리 사회의 획일주의 때문에 피해를 입었지만 최근들어 기업들이 전공이나 출신대학에 관계없이 국제적인 매너를 갖춘 실력있는 전문인을 우대하는 혜안을 갖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외대의 전통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보다 나은 실력과 국제적인 감각, 매너를 키워 잃어버린 외대의 자존심과 영광을 되찾아 보자. 조만간 우리 앞에 펼쳐 질 국제 사회에서 그 자격과 공로를 인정받는 거위가 되기 위해서도.

자격도 공로도 없는 '거위'가 아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거위'가 우리 외대인이다.

정 영 림
〈마인어과 교수〉

# 취업면접을 대비한 특강

요즘 어떤 직장에서든지 필기시험보다 입사지원자의 인성, 적성 등을 고려하는 면접시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생관, 직업관, 재능 등 자신의 모든 것을 짧은 시간 안에 마음껏 피력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

학생생활연구소에서는 이런 취업 면접에 대비하여 자기 표현, 자기 변화를 위한 '취업면접 특강'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

4학년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이 특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시간에는 이 특강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취업면접에서의 평가 사안 등을 강의하고 두번째는 미리 작성해 온 자기소개서를 직접 발표하고 다른 참석자가 면접관 역할을 하면서 서로간에 평가를 하게 된다. 세번째 시간에는 면접의 종류, 과정, 면접시 질의의 종류 및 형식에 대한 강의와 직접 조를 짜서 질의, 응답 등을 하는 실습시간으로 이루어지고, 네번째 시간에는 세번째 시간에 실시했던 면접장면을 비디오로 보고 그에 대해 참가자들이 토론하는 시간이다. 마지막 시간에는 조를 나누어 시사적인 문제나 (예 : 우루과이 라운드, 금융실명제, 핵문제 등)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조리있게 말하는 요령을 익히게 된다.

93년도에는 이 특강이 이미 만료되었고 94년도 신청은 학생생활연구소에서 하기 초여 할 수 있다. 94년도 특강에서는 1학기에는 이 5회분의 내용을, 2학기 때는 직접 1회 실습을 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다.

매년 취업 준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면접에 대한 대비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취업을 위해 면접시험에 대한 대비 때문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든지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자기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또한 여유를 가지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적극성이 필요하다.

〈김선아 기자〉

# 럭키금성의 실체변혁

## 프로 경영자란 무엇인가?

전문적 지식, 높은 목표, 자신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프로정신이 필요하다.

## "도공(陶工)이 도자기를 깨는 뜻은"

**프로 경영자의 조건**

'위기 의식' 상으로의 고민을 한다'는 말이 있다. 로고기보(論語)에서(學而)시, 논은 한 걸 한 걸 높은 매마다 빼는 법 없이(日日 省)는 한다. 자신 높은 바로 한 한심, 세월의 시간 내에 실현하는 작전 하나하나 상상이 맞고 있는 대로는 줄이는 이단 수는, 빼버릴 수 아닌 수로 있는 동이간 수 없는 걸 정이기 때문에 거기 1 등간에 작전의 전략은 정이야 한다. 기업 경영은 이윤의 창출이다. 전략의 프로 경영자란 상상의 책임하에 해내야 하는 전문인 다는 사업에게 미루지 않고 직, 회장에게 사업에 빠주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경영인은 프로가 되어 하는 것이다.

**일보이는 상사, 존경받는 상사**

상사가 부하들을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하게 하고 부 주한 능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부하들에 자이 있어야 해가 있어야 나이야 : 상도 없고, 나 : 중 상도 없게 되면 부하들 : 이기 위 위 주리 상사한테서 : 아무 상도 배울 것이 없 다고 하고 업보게 부터는 해가다. 이렇게는 부하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여러 국내외 관련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안목을 넓히고 해서 부 부보다 더 높은 상이 되어 한다. 그렇게 부하 사람이 이 상급자를 찾고 자발적으로 따르게 된다.

**폭넓은 식견을 갖춘 현장주의자로**

평범한 전문가는 '나무를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지식인이 되기 쉽다. 기술계 출신 경영자가 기술개발에만 치중하다 보니 기술적으로는 훌륭한 제품이 나왔는데 가격이 비싸서 판매에는 실패했다는 얘기는 흔히 들는다. 회사의 전문가는 전체적 시안에서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의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은 물론, 관련 부문과 인간 교양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 보한 전지한 현장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는 경영환경에서는 '어제의 전문가'가 '오늘의 문외한' 이 되기 십상이다. 항상 현장을 쉬하면서 동시에 전장의 변화는 직접 보고 들어야만 진정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과정에 최선을, 결과에 승복을**

진정한 프로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이 승복한다. 즉, 그 부문의 최고 전문가라고 인정하여 인이 받기 전 내, 자신의 일에 대해 다 그 누가 평 가할 수 있겠는가? 훌륭한 프로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성공이 다음 때에는 무슨 수법을 동원하는 빼앗아 버린다. 그게 진정한 승리 놓고 왜 빼버리는 : 차라리 깨끗이 나에게 나눠 내라고 해도 그것을 거절하는 프로는 없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성공은 세상에 남기는 수가 없다는 엄격한 자기평가의 자세라고 생각된다.

**경영자는 높은 목표를 가져야**

경영자는 높은 목표를 가져야 한다. 안일한 경영한 놓은 보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참다는 경영자는 결코 프로가 아니다. 과연은 나라가 자리는 지원해야만 성취할 수 있는 높은 목표이야 사람이 이룩을 것에 되며, 혼신의 힘으로 지해야 참다는 명예해서 도전하게 되고, 또 그것은 비단으로 개인의 성공하고 회사가 발전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프로 경영자**

스스로 높은 목표는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내가 이런 일을 잘한다 생각 : 나는 만해서 인했다' 하는 것은 대해 잘한 것이 아니다 그 일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룩했다는 확실히 깨닫는 중요시해야 한다. 이와같이 결과에 대해 스스로 엄격하게 개관적인 평가는 한으로써 자기관리는 하는 경영자가 훌륭한 경영자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의 자기의 없다. 자유경쟁은 '스스로 자기는 평가하는 프로경영자'를 요구한다.

구자경 회장 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중에서

인간존중의 경영 럭키금성

김삼석 김은주 간첩 사건

# 문민시대 안기부 첫작품 실패

## 성고문등 과거 자행되던 고문수사 여전

## 결혼 축의금을 공작금으로 조작 수사

안기부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번 간첩사건을 이용하고 있다.

개혁시대에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또다시 간첩사건을 터트리고 있다.

작년 '간첩단 사건'의 경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적(?) 차원이었다면 이번의 간첩사건은 종족 보존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시국사범 '김들이기'를 위한 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현재 국회 정치관계 특별위원회 역시 안기부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기부는 초조해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기에 '지, 봐라. 조금만 방심하면 간첩이 득세한다'라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해야 하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9월말 안기부는 "김삼석, 김은주 남매가 일본으로 건너가 간첩사건과 연관된 재일 한국인 통일 연합(한통련) 이좌영 고문과 권용부 사무국장을 만나 공작금을 수수했다"라며 "특히 김삼석은 친북한 성향이 농후한 재일 한국인 정치범을 구원하는 가족교포회(이하 교포회)와 접촉했다. 그들에게 국내 반핵통일운동을 주도하라는 지시를 받은 한편 군사기밀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구속 사유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삼석, 김은주 간첩 조작사건 대책 위원회"(이하 대책위) 이상을 간사는 "만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의 제야 단체 관계자와 한통련과의 만남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지난 83년 김영삼 대통령은 광주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식 농성을 했다. 그 당시 한통련은 지지 단식 농성을 펼친 단체로 반국가 단체가 아니다"라며 안기부 주장에 반박한다.

교포회에서도 역시 한국에 보내온 공문을 통해 "…십수년간 지속돼온 우리의 인도적인 활동을 간첩 누명을 씌어 몰아붙이고 있다.… 특히 그가 결혼한 지 얼마되지 않아 축의금을 주었을 뿐인데 그것을 공작금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모독이며 음해책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안기부가 국가기밀 누설 혐의의 증거 자료로 제시한 것은 김삼석이 접촉한 '청년과 군대'라는 소책자이다. 그런데 이 책자는 김삼석이 그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발간이 됐다.

김은주가 잡히게 된 배경 또한 의문투성이다. 그녀는 김삼석을 통해 진보적 영화 단체 '남누리 영상'의 베인오 대표를 알게 된다. 지난 9월초 그녀는 베인오의 "일본에서 누가 올테니 그가 주는 것을 받아 지명하는 사람에게 줘라"라는 부탁을 받고 약속 장소에 갔다.

그 틀린을 받고 얼마안가 안기부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그 서류 봉투 안에는 '김일성 전집, 세기와 더불어'라는 책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베인오와 일본에서 온 자가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점은 안기부의 함정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다. 불법 서적의 개념으로 규정된 책 역시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이다.

김삼석의 부인 윤미향은 "남편이 무수한 폭언과 폭행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했다. 지난 5월 일본에 있을 때 전(前) 교포회 회장 이좌영을 통해 북한 조국통일위원회 참사관 이철을 만났다고 말했으나 조사 결과, 그런 직책과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그 기간에 이철이 일본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한다.

수사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검찰에 제출된 그녀의 고소장을 보면 안기부의 '사람 잡아먹기' 작태가 적나라하게 묘사돼있다.

"…햇빛없는 지하실에서 재우지 않고 가슴과 뺨 등을 수없이 구타했으며 치솔로 성기를 문지르는 등 성추행을 했다.… 김삼석은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허위자백에 대한 대항방법으로 벽에 머리를 부딪쳐 목과 엉덩이 뼈를 상하게 하는 자해를 시도했다.…"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상황을 분석해 볼 때, 문민시대 안기부의 첫작품은 오히려 자신의 명예(?) 실추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정치권력도 스스로의 개혁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오직 안기부만이 구시대의 유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실명제로 지하자금의 길을 찾아주는 것처럼 지하권력 안기부의 '정도(正道) 찾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김남중 기자>

지난 7일(일) 단국대에서 열린 전국교사대회에는 만여명의 교사들이 참가했다.

'93 전국 교사 대회

## "아이들이 곁에 있는 한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EI(국제교원노조 총연맹) 가입을 축하합니다' '참교육, 교육개혁의 주체 전교조'

지난 7일(일) 오후 1시 단국대 실내 체육관에서 EI가입 기념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교사 결의대회가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여기저기 붙어있는 PC와 대자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선생님들의 강한 교육개혁 의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당시 전교조의 이러한 결단은 "참교육의 실천과 교육개혁의 실천이라는 최대 목표를 위해 새로운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여 싸움의 방법을 바꾼 것"이라고 김창택씨(충북 해직교사)는 당시 전교조의 결단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하는 노래 '어럴때 내꿈은'으로 시작한 이번 결의대회는 "복직을 앞둔 선생님들의 갈등"을 담은 연극과 풍물놀이 등의 공연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집회장을 메운 사람들은 손잎잡고 오는 부부, 아기를 등에 업은 주부 등 모두 검소하고 수수한 모습의 우리 선생님들이었다.

"우리는 정부에게 굳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육개혁을 위해 명예로운 원상복직을 잠시 유보했을 뿐입니다"고 사회자는 힘이 빠져있는 교사들에게 힘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다수 해직교사의 현장 복귀 결단의 취지를 살려 학교와 각 지역 사회에서 참교육 실천과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앞으로 전교조는 빠른 시일내에 합법화를 이루기 위한 교육개혁의 실천적 대안마련과 이의 제도적 관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미 기자>

## 김삼석씨 부인 윤미향씨를 만나

## "이번 사건으로 민족 고통의 원인이 분단임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심한 고문을 받았다던데

=지금은 영등포 교도소에 있는데, 안기부에 잡혀있던 30여일 동안 여러번 실신했대요. 나천적인 실력을 지닌 그가, 검견과정에서 자해를 했을 때, 고문을 담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안은 물을 마시지도 못했죠. 아직도 엉덩이뼈가 아파 앉지를 못해요. 외상은 완쾌됐지만 내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힘드셨지요

=신혼여행 갔다온 지 6개월만에 이별… 잡혀가는 남편지도 간첩사건으로 워낙 줄 누구도 예측 못했어요. 면회하기 위해 안기부 건물 앞에서 꼬박 이틀밤을 세운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이 조작이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허위자백 강요의 내용을 대책위 사람들과 공유하고 바깥 소식을 알려주는 등의 일을 시작하지 힘이 나더라구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현재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간사로 있어요. 최근에는 '김삼석, 김은주 간첩조작 사건 대책위원회'에서도 일을 하면서 국제 인권위원회, '일본에 있는 정치범을 구원하는 가족교포회 등과 연대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하면서 우리 민족 고통의 원인이 분단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일본에서 부시당하고 한국에서도 지원해주지 않는 해외교포를 만나면서 그들의 아픔을 피부로 느꼈어요.

국제 인권위원회 회의에 참가했을 때 북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통일방법을 운운하는 것이 하찮게 느껴졌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이' 복받쳐 오르더라구요.

—김삼석씨가 본교를 졸업했던데

=예. 외대 용인캠퍼스 러시아어과를 83년도에 입학해서 91년도에 졸업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하하)

졸업하고 남편은 반핵평화운동연합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만났어요. 얼마안가 혜산할 것 같아요. 아이 이름도 벌써 정했죠. '조국은 하나'라는 생각으로 김하나라고 지었어요.

외대생은 지주 봐요. 학교다닐 때 남편은 '제 3세계 연구회'라는 동아리에 있었는데 그 후배들이 지금도 도와주고 찾아와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김남중 기자>

기자의 눈

## 봉쇄된 통일염원

11월 3일(수)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서총련)의 서울—평양 축구대회 불허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들과 함께 통일 지전거 대회의 불허 소식을 듣고 나온 경기·인천지역 총학생회연합(경인총련) 소속의 학생들이 집회에 참가했다.

"지금쯤 통일로에서 신나게 페달을 굴리고 있어야 할 우리가 왜 이곳에 앉아 있어야 합니까"라며 "자전거 타고 임진각까지 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구파발에는 만여명의 전경들이 원천봉쇄를 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문민정부 입니까"라고 경인총련 의장 김상규군은 말한다.

이때에도 이미 신촌에는 전경 천여명과 페포포그가 곳곳에 배치돼 있었다. 경인총련은 구파발에서 판문점까지 자전거를 타고 북한 학생들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지난 10월 28일 통일원으로부터 불허 방침이 내려져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임진각까지 자전거 행진만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또한 서총련에서는 평양 학생 위원회 소속 학생 50여명을 초청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동대문 운동장에서 축구대회를 가지기 위해 신청서를 통일원에 제출했으나 불허방침이 내려졌다.

서총련 의장 김기헌은 "통일원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불허 이유를 밝혀 왔습니다.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북·미회담을 3자 입장에서 바라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미국이 통일을 시켜준답니까"라며 불허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본교 용인캠퍼스 조수웅(서학. 함가리 1)군은 "어제 임진각에서 먹을 김밥을 힘들여 쌌는데… 자전거 탈 생각으로 잠까지 설쳤는데 정국은 못가는 군요"라며 아쉬워 했다. 집회를 정리하고 서강대에서 거리로 나온 학생들은 '일본 군국주의 반대, 평화통일 실현'이라는 문구를 등에 붙이고 가두 선전전을 했다.

또 서울역 광장에 모여 촛불 시위를 했다. 그러나 곧 도착한 전경은 학생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선전전을 봉쇄했다. 선전전을 지켜보던 중 전경들이 학생들을 에워싼 것을 본 한 시민은 "학생들 공차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여. 또 평화롭게 시위하는 학생들을 왜 못살게 군다냐"라고 말한다.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이유로 학생들의 지주교류를 계속 불허하고 있다. 핵문제는 남북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 그럼에도 공격형 군사훈련인 T·S훈련을 즉각 중지하고 있지 않는 정부에게 묻고 싶다.

만나지 않고 통일하는 방안이라도 갖고 있단 말인가?

<신동헌 기자>


## 연수원 재학생과정 모집요항

본 연수원에서는 1994년 상반기 재학생 어학강좌를 개설합니다.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Native Speaker 강사진들이 열성을 다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1. 모집학과, 인원 및 시간

| 학 과 | 과 | 정 | 교 육 시 간 | 인 원 |
|---|---|---|---|---|
| 영 어 | E1 | 1 단계 | 월, 화, 목, 금(주4일) 17 : 30 - 19 : 20(1일 2시간) | 각반 25명 |
| | E2 | 2 단계 | | |
| | E3 | 3 단계 | | |
| | E4 | 4 단계 | | |
| 일본어 | J1 | 1 단계 | | |
| | J2 | 2 단계 | | |
| | J3 | 3 단계 | | |
| | J4 | 4 단계 | | |

2. 교육기간
가. 봄 학 기(제17기) : 1994. 1. 31(월) -4. 8(금) (10주)
나. 여름학기(제18기) : 1994. 4. 11(월) - 6. 17(금) (10주)
3. 지원자격 :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생
4. 선발방법 : 등록순 마감
5. 수 강 료 : 140,000원 입시납
6. 가을학기(17기) 등록기간 및 장소 : 1993. 11. 8(월) 부터 본 외국어연수원 교학과
7. 기 타
가. 강의시간표 및 교재는 개강 1주일 전 연수원 교학과 게시판에 공고함.
나. 과정은 간단한 본인 태도를 거쳐 연수원에서 결정함
다. 수강인원이 미달될 경우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교육기간이 같은 한만인과정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노어, 베트남어, 서반아어, 불어 강좌도 개설됩니다 (수강료 ₩220,000)

*문의전화 : 외국어연수원 교학과, 961-4174/5

1993. 11.

외 국 어 연 수 원

## 예비군 기본교육 및 보충교육 실시

본 대학교 93년도 예비군 기본교육 및 보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교육훈련 불참자와 2학기 복학자 중 교육 미이수자는 전원 참석바람.

—아 래—

1. 기 간 : 93. 11. 15(월) - 11. 17(수) 08 : 00 - 17 : 00
2. 장 소 : 동대문 예비군 훈련장(미금사격장) …5278부대 3대대
3. 교육대상
가) 93년도 예비군 훈련 불참자
나) 91, 92년도 교육훈련 불참자 및 시간 미달자
다) 93년도 2학기 복학자 중 교육 미필자
4. 유의사항
가) 예비군복을 필히 착용하고, 지각자는 귀가 조치함.
나) 수송버스 이용자는 학교에 06 : 50까지 집결할것.
다) 중식은 각자 지참할것.

*필히 소집 통지서를 본인이 수령하여 일자와 시간을 확인할 것.

1993. 10. 27

직 장 예 비 군 연 대 장

## 94학년도 제1학기 모현학사생 모집 안내

본 용인캠퍼스 모현학사는 94학년도 제1학기 남, 녀 학사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코저하니 희망 학생은 신청하기 바람.

—아 래—

1.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 각 건물 안내실
2) 접수기간 : 1993. 11. 8(월) ~ 12. 10(금) 까지
3) 원서접수처 : 모현학사 운영과(기숙사내)
2. 제출서류
1) 입사원서(소정양식)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성적증명서 1통
4) 증명사진 3장
3. 선발기준 : 학업성적 및 통학거리 고려
4. 입사확정 : 서류 심사후 입사 확정자에 한하여 입사기간 및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94년 2월 초순경 우편으로 개별 통보할 것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현학사 운영과로 문의바람.
(0335) 33-1692, 30-4102, 4103

1993. 10. 29

모 현 학 사 장

중흥외대, 민주총장과 함께 달린다(3)

—타대학 총장선출 과정

# 총장선출, 화합과 분규의 갈림길

보도기획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 이강희 총장의 후임선출을 둘러싸고 교수협의회(교협)와 노조, 학생회간의 입장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교협은 직위, 학생들의 직·간접적 참여를 전혀 배제하고 있어 노조·학생회측이 주장하는 3지대표가 참여하는 '민주총장 선출위원회'구성을 반대하고 있다.

더우기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와 총동문회는 총장선출에 관한 어떠한 입장도 아직 발표하고 있지 않아 이후 총장선출과 관련 학내 각 단체들의 민주적의사 수렴과 통일적 입장을 내세우기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총장선출을 둘러싼 본교의 이러한 심정은 비단 본교만이 앓고있는 문제가 아니다. 87년 민주화 항쟁이후 건설되기 시작한 교협은 88, 89년 전국적으로 직선총장을 단행시킨다. 교협은 총장선출 방식으로 대부분이 교협식 선출방식이나 추천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총장선출을 둘러싸고 교수들만의 직접선거에 반발한 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요구는 6공시절 각종 학내분규의 원인이 됐다.

고려대는 90년 8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홍 총장서리의 후임총장선출을 놓고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내 단체간에 이견을 보여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교수, 학생,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었으나 후보 추천방식을 놓고 교수와 직원, 학생간의 입장이 엇갈려 결국, 학생들이 불참한 가운데 총장후보 6명을 선출했다. 학생들의 반대집회속에서 교수협의회는 김희집 교수와 홍일식 교수를 총장후보로 뽑아 이 가운데 김희집 교수가 제단에 의해 총장으로 결정됐다.

숙명여대의 경우도 89년 8월 김옥렬 총장이 물러난 뒤 신임총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김상순 교무처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한동안 계속됐다. 이 대학은 김총장의 연임을 반대하며 이른바 '3선저지 투쟁위원회'가 김총장 퇴진 이후 교수협의회, 노조, 총학생회 등 학내 3개 단체가 참여하는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공동준비위원회'로 바뀌었으나 이 단체를 의견수렴 단체나, 총장선출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체로 보느냐 하는 교수와 직원, 학생간의 의견이 맞서면서 분규를 겪었다.

89년 인하대, 90년 성균관대 등도 총장이 물러난 뒤 교수들과 직원, 학생들의 의견이 맞서, 커다란 진통을 겪었다.

한편, 3자구성원들의 총장선출에 관한 규정안 합의에도 불구 재단측의 반대로 학내분규를 일으키는 대학들도 있다. 얼마전 교수들의 직선으로 총장을 선출한 광운대의 경우 지난 6월 교수, 직원, 학생대표가 모여 '총장후보 선출에 관한 규정안'을 작성했으나 재단이사회의 반려조치로 신임총장 선출을 놓고 큰 난항을 겪었다. 이러한 재단측의 거부에 대해 총학생회측은 단식농성등 강경대응으로 맞섰고 노조와 교수협의회에서는 합의성명서를 발표했다. 결국 지난 10월 16일(금) 직원대표와 학생대표가 참관하는 가운데 총장후보 2인을 추천하고 재단은 이를 수락, 교육부의 인준을 남겨놓고 있다.

총장선출을 둘러싸고 재단과 학내구성원들과의 대립양상은 한 대학 두 총장을 낳는 기이한 현상을 빚기도 했다. 88년 세종대의 경우 3구성체의 참여로 선출한 이종출(국문학과)총장을 문교부가 승인하지 않자 재단측은 박홍구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해 학생들의 거센항의를 받았고 교수협의회는 다시 오영숙(영문학과) 교수를 직선으로 선출해 당시 문교부와 재단의 조치에 반발했다. 한 대학 두총장의 기이한 현상은 89년 경기대와 지난 4월 재단의 일방적인 총장선임에 반기를 들고 나선 교수협의회의 직선총장선출로 아직껏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있는 대구대에서도 빚어지고 있다.

3자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룬 대부분의 대학들은 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 총장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작성하고 직원, 학생들의 투표에 간접적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고려대, 건대, 세종대, 조선대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직원,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돼 있다. 세종대는 '총장선출 여론수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을 선출한 경험이 있고, 고려대는 교수, 학생, 직원으로 구성된 '총장선출 추천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밖에 중앙대는 89년 첫 민주총장 선출시 직원들의 투표참여에 이어 지난해 총장선출때도 직원들의 투표참여가 있었다. 그러나 교협측의 단독직선 움직임이 엿보여 직원과 학생들의 거센항의로 한때 큰 진통을 겪기도 했다.

총장은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최고의 책임자이고 대표이며 지도자다. 이러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비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이라면 학교의 장래는 결코 밝지 못하다. 어떠한 자본과 권력에도 억압받지 않는 자주적 학사운영은 학내 제 구성원들의 자주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가능한 것이다.

<대학부>

타 대학에서도 교협의 단독적인 총장선출에 대해 직원·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후배에게 물려줄 외대의 모습은(9)

# 좁은 부지와 열악한 후생복지

학생후생복지 증진과 캠퍼스 교육환경 개선은 본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중 하나다. 이런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에 대해 대학당국은 5개년 계획 기본 구상안(이하 기본안)에 이 부분을 제시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적지않게 지적되고 있다.

학교부지가 좁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기본안에는 후생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제 1·2 다목적 연구동을 각각 오는 94년·96년 8월에 완공한다고 기술돼 있다. 그러나 제 1다목적 강의동은 공사완공시기인 다음해 8월까지 10개월도 채 안남은 현재, 착공도 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대해 대학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가 건물매점(강풍) 부지에 건설할 건물은 소방도로 공사가 끝난 후 착공할 예정이며 이는 학생측과 구상안 심의때 합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반해 총학생회 정책국장 이상운(상경·무역 4)군은 "전체 기본안에 대해 합의한 것이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합의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소방도로 문제와 상관없이 계속적인 학교부지 확보와 교육시설 확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고시원을 94년 3월까지 학군단으로 이전한다는 조항과 관련, 외무고시반 전 실장 윤경철(서양·노어 4)군은 "고시원의 학군단 이전은 고시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아니다"며 "신축건물이 아니면 이전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문제로 고시원 내부에서 이견이 존재해 고시원생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세부안을 작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학생취업정보센터(취업센터)의 공간배정에 있어서도 대학당국은 난항을 겪고 있다. 취업센터측은 현재 학생회관 1층 전시실을 요구했으나 동아리연합회의 반대로 무산돼 대체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제2캠퍼스의 고질적 병폐인 대학촌 부재로 복지시설이 미흡한 용인캠퍼스의 후생복지 문제는 기본안에 명시돼 있지도 않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용인캠퍼스 학생들은 2학기 초부터 후생복지관 건립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단위학생회 연합 의장 박영창(서학·이태리어 4)군은 "대학당국으로부터 3층 건물 후생복지관 건립과 이를 5개년 계획안에 포함시킬 약속을 구두로 받았다. 그러나 3층 건물로는 학우들의 복지요구를 실현시키기 어렵다"며 대학당국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계속 요구해 왔던 신규기숙사 건립, 고시반 시설개선및 확충부분은 검토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대학당국의 용인캠퍼스에 대한 무지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문제, 오수종말 처리장 부분에도 장기적으로 계획이 짚반침돼야 할 것이다.

## 장기계획수립으로 해결해야

학생자치기구 점검—언론 협의회

# 언론사와 학생회간 교량역할

전국 각 대학에는 다양한 언론기구가 저마다 독특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본교에도 학보, 영자신문, 교지편집위, 교육방송국의 4가지 언론기구가 활동하고 있다.

80년대 말은 대학언론탄압이라는 채찍이 매섭던 시기였다. 이때 서울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각 대학은 대학내 제 언론기구의 공동대응 일환으로 협의체를 결성했는데 이것이 바로 언론협의회(이하 언협)이다.

본교는 89년에 결성되어 현재는 본보를 비롯 영자신문(THE ARGUS), 교지편집위원회, 서울캠퍼스 교육방송국, 용인캠퍼스 교육방송국의 5개 언론사로 구성되어 있다. 언협은 올해 4월 선전, 교육, 사무 3개 부서와 서울 5명, 용인 4명의 집행부로 시작했으나 현재 활동은 미비한 형편이다.

현재 언협은 결성초기의 취지와 더불어 또다른 역할과 위상을 인식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필요되어지는 언협의 역할은 한마디로 말하면 각 단위 언론사와 학생독자간의 연계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각 언론사마다 나름대로의 노력도 있겠지만 언협은 각 단대와 과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언협 집행부로 일하는 김형미(동학·일어 3)양은 "언협은 구체적으로 각 과 편집부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각 과 편집부는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언론으로서 학생들의 생각을 각 언론사에 전달하고 언론사들은 편집부들이 원하는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교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언협의 역할이 중요하죠"라고 말한다.

언협은 학생회와의 연계도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각 언론사기자들도 학생이거나와 그들이 대학당국에 요구하는 것들(기자성적 조항 철폐, 편집자율권 보장)과 또는 언협이 학생들을 상대로 벌이는 사업에 관심유도를 통한 학생들의 참여와 그속에서 이루어지는 의견공유를 위해서는 학생회와의 연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언협은 이러한 변화된 역할과 위상에 못 미치는 활동을 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언협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각 언론사 내의 문제로 나뉠 수 있다. 먼저 언협 내의 각 부서들이 해마다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는 점이다.

각 언론사 기자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그 위상과 역할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언협의 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또 한기지 부가할 점은 언협이 학교로부터 지지기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지기구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학교의 지원금을 원절받지 못한 데서 생기는 재정난은 물론 학생회와의 연계부분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발행 32호째를 맞은 교지편집위는 언협내 각 언론사가 대학공식기구인데 반해 학생지치기구이다. 현재 교지는 연 2회 발간을 체계로 하고 있다. 문화부, 자료편집부, 사진부, 학술부로 구성된 교지는 현재 10여명의 편집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상준 기자>

## 좋은 일하고 빰맞기

○…요즈음 '이문벌'에는 부단횡단하는 흡산들의 써가 말말다는데….

이유는 친절한(?) 교통순경님께서 눈에 불켜고 비가 오나 바람 부나 안보이게 숨어 지나가는 흡산들을 감시하기 때문이라는 것.

부단횡단하는 흡산들 단속하는 건 봐줄만 하지만 실적 올리려고 숨어서 감시하는 건 좋은 일하고 빰맞는 격으로 흡산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오.

○…'후배가 복적하면 베이파 김의(?) 하는 선배 또 속출' 해외문제감 이라는데 "전교조 해직교사는 복직하면 반성은커녕 개선장군처럼 날뛸것이고 자질과 품위 또한 의심스러워 절대 노우" 한 술 더 떠서 교육부의 권위주의적 자세에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노발대발했다나.

사립·국공립 교장단이여/ 국민들은 철없이 걸의하는 그대들을 '해직' 시킬 수 있음을 명심하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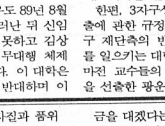
○…왕산골에 올리는 닭고 고운 소리 고구마 사려 고구마 사려

더이상의 돈세탁은 필요 없다며 고구마 팔아 선거자금을 대겠다는 흡산들이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호뭇하게 한다는데.

선거운동마저도 학우들과 함께 하겠다는 가륵한 마음이 하나 둘 모일때 왕산발전은 항상 흡산걸에 있지 않을까?

○…'과거군사독재 시절의 잔재가 문민시대에도…'라는 언론의 학생의날 남충련 시위 보도. 깜짝놀라 크로니클자 살펴보니 역시나.

페인트 통은 화염병으로,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 핵사찰 반대로, 전투경찰의 파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탄탄한 거짓말 실력은 언제나 고쳐지려나?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걸지도 말고, 뛰지도, 달리지도 말고…, '학생의 날'을 맞이한 경인총련의 '자전거타기' 서총련의 '축구시합' 계획은 김영삼 정부의 갑작스럽게 불허 한 마디.

'움직이면 쏜다'로 무산. 그래도 영원히 움직이는 우리들의 통일 의지—.

쏠테면 쏴봐라….

쏠테면 쏴봐라

# 비둘기 휠관

■교사 모집합니다.

과목 : 중, 고 검정고시 전과목
위치 : 우이동 우이시장 부근
전화 : 993-2626(늦은 7시 이후)
기간 : 11월 13일까지
대상 : 외대인은 누구나

<북부 청소년 학교>

이문벌

■아랍어과 HOMECOMING DAY

영원한 아랍어과의 'Arabian Night'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비 빨리 내시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A93 예쁜이>

■일일호프 합니다

목적 : 지체 부자유 어린이를 위한 기금마련
때 : 11월 13일(토) 12시-19시
곳 : 경희대 앞 모두랑 호프
티켓판매 : 4층 RCY 방

<RCY>

때 : 11월 9일(화)
곳 : 외대호프
목적 : 학회지 기금 마련
덧붙이는 말 : 학회를 사랑하시는 분 필참

<영어과 사과회 what is to be done?>

■정기 미전 엽니다

때 : 11월 8일~11월 13일
곳 : 학생회관 1층 전시실

<그림촌>

■포항(여)고 졸업생 환송회

때 : 11월 13일 늦은 6시
곳 : 비어괄라 호프

왕산골

■고 전태일 열사 23주기 추모제

때 : 11월 16일(화) 늦은 5시
곳 : 도서관 3층 세미나 실
후원 : 동아리연합회, 단위학생회연합, 한국기독학생총연맹(KSCF)

<기독학생회 SCA>

■청맥제

때 : 11월 8일~10일
곳 : 노천극장
행사 : 빈민민중가요제, 지역학 특강, 민속놀이,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상영. (도서관 세미나실)

<민족서대 학생회>

■제1회 스키장비 전시회

때 : 11월 7일~9일
곳 : 학생회관 1층 전시실

■지갑을 찾습니다.

11월 3일 늦은 9시경 외대발 동서울행 직행버스에서 밤색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셨거나 보관하시고 계신 분은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노어과 학회방(4488)

■북한 영화제

때 : 11월 9일~11일
곳 : 도서관 세미나실(3층)
내용 : 9일-새
10일-은달전
11일-호동왕자와 낙랑공주

<민족영화패 빛모습>

■제6회 무역인의 밤

때 : 11월 13일 늦은 5시 30분
곳 : 삼성동 뉴월드호텔 연회장

<자주무역학과 학생회>

■많이 오세요

드디어 하루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말에서 여러분께 금방 불에서 끄집어낸 따뜻한 빵과 같은 사랑을 나누어 드립니다. 싸늘한 가을저녁에 손말에 실려 있는 따뜻한 사랑을 듬뿍 받아가세요.
때 : 11월 10일 늦은 5시 30분
곳 : 지연대강당

■생일 축하해요

11월 9일, 생일 축하해요.
박정희양./
앞으로 「질은밤이」와 함께 즐거운 대학생활을 해요.

<영희언니가>

■제주 향우회

때 : 11월 11일 늦은 5시 30분
곳 : 학생회관 가건물

■관악, 동덕

때 : 11월 16일 늦은 5시 30분
곳 : 승차장 식당
회비 : 1만원+α

# 용인 각 단대 문화·학술 축제 막바지

## 학생회 1년 사업 평가하는 계기

## 실내체육관등 문화시설 미비 지적돼

각 단대 문화·학술 축제가 지난 8일(월) 개막된 서양학대의 '청맥제', 인문대의 '해인제'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청년의 가슴에는 조국이 있습니다'라는 표어로 진행되는 서양학대의 '청맥제'는 8일(월) 노천극장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첫째 날에는 민중가요를 각 과 언어로 번역해서 부르는 '범단 민중가요제'가 개최됐다. 둘째 날인 오늘(9일)에는 각 과별 지역학을 내용으로 하는 특강, 북한영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상영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마지막 날인 10일(수)에는 통일염원전의 내용을 담은 '연날리기 대회'와 서대각과 문예패가 총동원되는 폐막식이 기수 권인하씨의 초청공연과 함께 열린다.

1년동안의 학생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과 학회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인문대의 '해인제'는 8일(월) 노래패 '절름발이'의 공연과 풍물을 주제로한 '퀴즈 동서남북'이 개막색과 함께 치뤄졌다.

행사 둘째 날인 오늘 (9일)에는 언어학과 학회 '도토리'와 사학과 학회 '아르케(ARCHE)'가 준비하는 학술발표회가 '신세대 대학생의 음바른 모습', '바이마르 공화국 연구'라는 주제로 각각 열린다.

마지막 날인 10일(수)에는 철학과 학회 '집'이 주관하는 영화제와 인문대 가요제가 계속된다. 또한 상설적인 전시행사로 인문대 문학반 '새날'이 준비하는 시화전, 사학과의 탁본전, 사진전 등이 열린다.

단대 성원간의 단결과 화합을 추구하고 학생회 1년사업을 총정리·평가하는 자리가 됐던 이번 각 단대 문화·학술 축제는 이느 때보다 과단위의 학회·학생회의 참여가 높았던 행사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학술, 체육행사 개최에 있어 실내체육관 부재, 전시회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부족이 가장 문제로 지적됐다.

### 서울 화란어과 종합 예술제 실시

서울캠퍼스 화란어과는 오늘(화) 부터 13일(토) 까지 예술제를 실시한다.

오늘부터 11일까지는 영사실에서 영화제를, 10일부터 3일 동안은 대학원로비에서 전시회를 각각 개최한다. 또한 12일에는 연극, 춤, 노래 등의 예술공연이, 13일에는 동문인의 밤(HOME COMING DAY)이 대학원 소강당에서 열린다.

화란어과 과학장 간종렬(3년)군은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예술제가 부담이 되긴 했으나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행사 준비 소감을 밝혔다.

### 서울 탈반, 정기공연 '언론공화국' 개최

서울캠퍼스 외탈 정기공연 '언론공화국'이 지난 3일(수) 노천극장에서 개최됐다.

총 세마당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60년대부터 현시기까지 한국언론을 춤과 상징물을 이용해 개괄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 행사는 시월제기간에 전행될 예정이었으나 우천관계로 연기돼 지난 3일에 열렸다.

## 용인 조통위, 북한영화제 개최

## 북한에 대한 이해폭 넓히는 기회

용인캠퍼스 조국통일위원회(위원장 인문대 학생회장 이승범)가 주최하고 민족영화패 '빛모습'이 주관하는 '북한영화제'가 오늘 (화) 부터 11일(목)까지 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지난 범민족대회에서 선보였던 새, 온달전,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등이 상영된다.

북한의 실정과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영화제에 대해 이승범(인문·철학 4)군은 '통일의 성지 왕산에서 우리의 반쪽인 북한에서 직접 제작된 영화를 상영하게돼 부척 기쁘다'며 '이번 영화제를 통해 앞으로 북한과의 자주교류사업이 대중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행사개최 소감을 밝혔다.

### 가을 정기미전 열려 그림촌 주최

제44회 가을 정기미전이 서울캠퍼스 그림촌 주최로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8일(월) 부터 오는 13일(토) 까지 열리는 이번 미전은 그림촌의 창작활동을 통한 회원간의 친목과 외대인의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총무처 주관, 직원 수련회 열어

##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돼

직원수련회가 총무처 주관으로 오는 13(토), 14일(일) 양일간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번 수련회는 지난 10월 22일(금)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단체협약 규정에는 '정기적인 직무교육(전문가 초빙) 또는 직원연수를 년2회이상 실시한다.'고 돼 있다.

### 서울 목요음악반 정기음악회 개최

제21회 서울캠퍼스 목요음악반 정기음악회가 오늘(화)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음악회에서 1부는 음악감상매체의 발전과정이라는 주제로 기존의 감상위주에서 벗어나 학술적인 면이 가미된다.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김용규(서양·독어 2)군의 사회로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목요음악반 회장 장철민(상경·무역 2)군은 "생활을 여유있게 만드는 예술을 외대인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번 음악회를 준비했다"며 행사취지를 밝혔다.

### 서양어·서양학대학 교수세미나 열려

서양어·서양학대학 교수 세미나가 지난 10월 29일(금) 용인캠퍼스 어문관 412호에서 열렸다.

15명의 교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해외연수를 마치고 온 교수들로부터 해외의 생활, 문화를 듣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스키장비 전시회 용인 스키부 열어

용인캠퍼스 스키부(회장 박숙희, 동양·아랍 3)는 지난 7일(일) 부터 9일(화) 까지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스키장비 전시회를 연다.

아직 정식동아리로 인준을 받지못한 스키부의 이번 전시회는 동아리 홍보와 레저스포츠인 스키의 대중화를 꾀하기 위해 열린다.

## 용인, 교내 정보통신망 개설

## 전국적인 정보망 구축 요구돼

용인캠퍼스에 정보통신망이 구축됐다.

동아리 연합회가 컴퓨터 연구회 '들썸'의 도움을 얻어 실시하는 정보통신망은 구내전화 4385, 4386을 통해 운영되는 구내정보통신과 전국통신망 '천리안'에 가입된 외대동호회들 두가지이다.

올해 초부터 추진됐던 정보통신망 구축은 그동안 대학당국으로부터 구내전화선 확보문제로 미뤄져 왔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 단위 학생회및 개인들의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고 각종 취업정보, 수험정보및 교내 강의자료 및 리포트까지 정보교환이 가능한 구내 정보통신망은 컴퓨터 연구회 '들썸'에서 직접 운영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XT급 이상의 IBM호환 컴퓨터를 구입한 후 2400에서 9600 BPS모뎀을 설치하고 '들썸'에서 제공하는 통신프로그램(이야기, 프로콤등)을 입력시켜야 한다.

'들썸' 소속회원인 권오성(자연·통계 2)군은 "교내에서 뿐 아니라 전국적인 정보망구축을 위해 학교측에 구내전화의 외부 직통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왕산에도 전국적 통신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학교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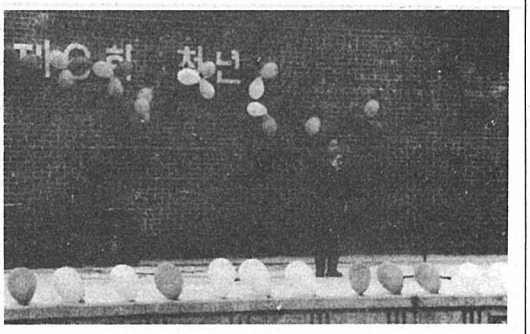
외대동호회에 가입과 구내정보통신망을 이용을 원하는 학생은 컴퓨터 연구회 '들썸'(학생회관 4층 4428)으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 영어과 주최 영국대사 초청강연 열어

주한 영국대사 초청강연회가 서울캠퍼스 영어과 주최로 지난 8일(월) 대학원 411호에서 개최됐다.

이번 강연회는 EC통합과 관련, 한영관계의 현단계및 유럽정세라는 주제로 데이비드 제이 라이트(David J Wright)씨가 강사를 맡았다.

이번 행사는 영어과 학생들의 영어실력향상, 국제적인 안목확대, 영국 대사관과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왕산 노래자랑' 용인캠퍼스 각 단대 문화·학술축제가 서양학대 '청맥제', 사회대 '청년제'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사진은 '청년제' 기간중 '왕산 가요제' 행사 진행 광경. <신동헌 기자>

## 서총련 경인총련

## 학생의 날 행사 불허 규탄대회 가져

## 선배정신계승으로 조국통일 다짐

지난 3일(수) 제64주년 학생의 날을 맞아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서총련)과 경인지역 총학생회연합(경인총련) 소속 1천 3백여명의 학생들은 서강대학교에서 기념식과 함께 서총련이 추진했던 서울, 평양 학생축구대회 불허와 경인총련이 추진했던 통일지전거티기 대회 불허방침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생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위한 서울, 평양 대학생 공동무생 결의문을 통해 남북학생들의 지주교류사업을 불허한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이후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인 체육, 문화, 정치, 학술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진행시킬 것을 다짐했다.

구파발에서 임진각까지 자전거타기를 기획했던 경인총련은 대회 전날, 정부의 불허통지를 받고 당초 구파발 집결을 변경, 서총련과 함께 규탄집회에 결합했다.

이날 경인총련 의장 김성규(경희대 총학생회장)군은 "민족의 지주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건 선배들의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일본의 군국주의를 지지하고 미국의 분단영구화 음모를 차단하여 조국통일 투쟁에 매진 할 것"을 결의했다.

학생들은 집회를 마치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고 서울역에 집결, 자신들의 내용을 선전했다.

### 용인 손말사랑회 수화 발표회 가져

수화를 연구하고 보급하는 '손말사랑회'(회장 조석, 동양·마인어 2)는 오는 10일(수) 지연대 강당에서 수화발표회를 갖는다.

조성옥군은 이번 발표제에 대해 "자칫 잊어버리고 무관심해지기 쉬운 장애인에 대해 학우들이 관심과 사랑을 갖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조군은 "해마다 개최되는 수화 기초반에 학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터어키어과, 종합예술제 열어

## 선배들과 유대관계 다지는 기회

제2회 과창설 20주년 기념 터어키어과 종합예술제가 서울캠퍼스 터어키어과 주최로 오는 4일(목) 부터 이틀동안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으로 시작되는 4일에는 축하공연및 가요제가 5일에는 민속노래와 춤, 원어연극 등 종합예술제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터어키어과 과회장 이정권군은 "이번 예술제는 과를 알리고 사회에 활동하시는 선배들과 유대관계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행사의의를 밝혔다.

### 김계수 퇴임 교수 출판 기념회 가져

지난 2월 퇴임한 김계수(정외과)교수는 지난 1일(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국정치 연구의 대상과 방법(한울출판사)'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김교수는 한국정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본교 정외과, 명예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 서울 화란어과 네덜란드어과로 명칭 변경

서울캠퍼스 화란어과는 과명칭을 네덜란드어과로 변경할 예정이다.

기획연구처에 의하면 교수를 중심으로 화란어과측에서 명칭변경 요청이 들어왔다고 한다. 화란어과가 제시한 변경이유는 △국제사회나 어느 곳에서도 화란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화란어라는 명칭이 일본식 한자어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점등이다.

참고로 화란어과 명칭변경을 위해서는 총장접견과 교육부 승인이 있어야 한다.

### 서울 행정학과 주최 모의 국무회의 열려

서울캠퍼스 행정학과 주최 제4회 모의 국무회의가 오는 11일(목) 대학원건물 104호에서 개최된다.

'1995 혼돈리는 실명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실명제 실시 2년 후를 가상으로 그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행정학과 과회장 전경자(3년)양은 "방학동 힘든 일도 맡았지만 준비위원 50여명이 모두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양은 "알찬 내용이 담긴 자리가 될것"이라고 행사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고침>

지난 615호(11월 2일자) 1면에 게재된 시월제 사진기사 내용중 '아르바이트'행사가 영어과 주최 '총학생회장을 징계한 재단과 학교측에 돌벼락을'이란 주제로 열린 수배자기금마련행사였음을 정정보도 합니다.

## 이사람

<< '외대사랑모임'대표 이태호군을 만나>>

'외대사랑 모임' 명의의 학생 대자보, 아침이면 교문에서 차량통제를 하는 학생들의 분주한 모습. 93년 2학기 들어 외대의 변화된 모습 중 하나다.

"외대인에게 학교를 사랑하는 평범한 학생으로서 실천하는 모습을 비춰주고 싶었습니다."

"외대사랑 모임(이하 외사모) 대표 이태호(상경·무역 2)군은 수업이 없는 시간이면 좁은 교정이지만 구석구석 누비고 다니느라 바쁘다. 이군은 "수업 끝나고 도서관앞과 상경대, 학생회관 뒷편에 있는 쓰레기수거기 속에 들어가 분리 작업을 합니다. 하다보면 금새 어두워져 손전등까지 필요하게 됐어요." 이젠 해가 짧아 일을 많이 못함을 아쉬워하는 눈치다.

"방학동안 혼자서 외사모를 구상하고 준비했어요. 지금은 석구가 8명으로 늘었죠. 힘든 일을 함께 하다보니 서로의 끈끈한 정을 느낍니다"라며 외사모 일꾼들을 자랑스러워 했다.

"아직까지 외대인이 환경보호와 지원재활용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그래서인지 폐휴지수거기에 김밥 찌꺼기며 담배꽁초가 함부로 버려지는 것이 비일비재라고 한다. "생활문화운동을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어려움도 감수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매일 들어있는 이물질을 볼때면 너무 불리주는 외대인이 야속할 때도 있답니다"라며 서운해 한다.

**"외대인에게 학교를 사랑하는 평범한 학생으로서 실천하는 모습을 비춰주고 싶었습니다"**

"수고해요'라는 작은 관심이 외사모 일꾼들에겐 커다란 힘이 된다고 외대인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한다.

"총무처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학교의 재정적 지원이 아주 미비합니다. 필요한 물품구입을 지주 미루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 우리의 학교사랑 실천을 왜곡해서 보고 건방지다고 말할땐 있던 힘도 빠져집니다." 차량통제를 할 때면 동특금 내고 차라고 다니는데 왜 그러냐고 따지는 경우도 자주 있다는 것이다.

"외사모는 차를 가진 소수보다는 전체외대인의 입장을 대신하고 싶어요. 서로 양보하고 소중한 관심을 모아 좁은 이문 벌을 따스한 정이 흐르는 공간으로 가꾸는 게 저희의 바램이죠"

이군의 말처럼 다쓴 연습장, 맛있게 마신 커피잔을 각각 폐지수거거지와 분리수거지에 넣는 모습이 지긋심이 있는 참 외대인의 상이 아닐까.

<오미나 기자>

1954년 외대개교와 함께 창간되어 호흡해온 외대영자신문 The Argus가 잃어버린 옛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리매김으로 이번에 The Argus 전호(300호) 축쇄판을 제작하고자 아래에 열거된 결호들을 혹 보관하고 계시거나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66(1954년. 7월-1964년. 10월), 69-80(1964. 12-1965. 11), 82-85(1966. 1-1966. 3), 87(1966. 4), 90(1966. 8), 92(1966. 10), 93(1966. 11), 95(1967. 1), 96(1967. 2), 98-100(1967. 6), 104-107(1967. 10-1968. 1), 109(1968. 8), 110(1968. 9), 112-116(1968. 11-1969. 5), 123(1970. 3), 126(1970. 7-8), 128-129(1970. 9-1971. 1), 131-132(1971. 3-5), 135(1971. 8), 138-141(1971. 12-1972. 6), 143-152(1972. 8-1974. 1), 154-156(1974. 3-1974. 7), 174(1976. 10), 177-183(1977. 1-1977. 9), 185(1977. 11), 187-192(1978. 1-1978. 8), 195(1978. 9), 202(1979. 10), 203(1979. 11-1980. 2). 234(1985. 3), 235(1985. 4), 239(1985. 10-11), 243(1986. 5-8)호

연락처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우편번호 : 130-791)
외대 신문사 : 02) 962-7128
The Argus 학생기자실 : 02) 961-4153
0335) 30-4113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영화평— '사랑하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보고

# 사랑하고 싶은 우리영화 보고싶지 않은 한국영화

최근 한국영화 제작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들어보라면, 아마도 '라이트 코미디'의 독주가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라이트 코미디'란 무엇인가?

이와 같이, 개념의 정립이 아직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그 의미를 한마디로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만일 그동안 발표되었던 작품들 가운데 객관적으로 '라이트 코미디'로 분류되는 것들을 모두 분석해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런대로의 '러남적 정의' 정도는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 라이트 코미디물들 및 가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결혼 이야기, 미스터 맘마, 그 여자, 그 남자 등)

92년 결혼이야기의 성공 이후, 철저한 기획하에 남녀의 사랑과 성을 소재로 다루었던 일련의 코미티치 영화군들. 정말, 이 '라이트 코미디'물의 붐은 대단한 것이었다. 홍행도 홍행이지만, "한국영화도 잘만들면 정말 재미있다"는 신뢰감을 의심많은 관객들에게 굳건히 심어주었다.

최근 개봉된 '사랑하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 또한 바로 이 '라이트 코미디'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역시 영화에 단골 소재가 되는 두여자와 한남자의 심각관계를 새로운 감각으로 즉, 과거의 신파조가 아닌 이른바 '신세대' 애정논리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었다. 요컨대, 사랑도 사랑이지만 우정, 일 등 자기자신과 관련된 다원적 가치를 사이에서 어느 한 쪽도 포기하지 못하는 아니, 않으려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그 반영은 조금은 부정적 의미를 띠고 있다.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남자 주인공인 '현우'를 놓고 벌어지는 두 여자 '진희'의 외양만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분명 신세대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들의 화려한 모습만이 다는 아닐 것이다. 그 내면적인 정체성이 담보되어 있지 못하다면, 절대로 그들을 끌어들일 수 없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 영화는 목표관객층을 설정해 놓고서도 그들의 정서와는 전혀 다른 사고 방식으로 감히 그들을 공감시키려 한, 즉 제작의도와 그 결과가 완전히 어긋나버린 부조화적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영화의 이같은 실패는 참으로 기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무언의 웅변으로 말해주는 실례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더이상 주먹구구식의 제작과 발상, 단순히 시류에 영합하는 식의 제작은 통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의 성공작 '결혼이야기'와 최근의 '서편제'는 이것을 잘 보여준다.

'라이트 코미디'의 포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결혼이야기'는 설문 조사까지 동원해 신혼부부의 심리를 파악한 후 제작된 철저하게 계산된 작품이었고, '서편제'는 홍행을 의식하기 보다는 자신의 예술혼을 묵묵히 달구어온 한 장인의 대작이었던 것이다.

로마는 절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았거니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다.

현재 한국영화제는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할리우드의 주요 영화사들(파라 마운트, 유니버살, 폭스, 워너 브라더스 등)이 시내의 주요 극장들을 점령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 그나마 유일한 버팀목들이었던 '스크린 쿼터제'와 '수입영화필림 복제필수 규제관련'마저 이미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관련기사 7면>

만일, 이것이 붕괴된다면 방화를 상연하는 극장은 한 곳도 존재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국산영화의 고사(枯死)와 우리의 '문화적 식민지화'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다.

또한 최근의 '한국영화 제작 사전지원제'를 둘러싼 '영화진흥공사'와 영화인들사이의 공방은 더욱 암울한 비전을 보여준다. 영화진흥공사의 1년당 1억의 지원금수혜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화사나 독립 제작자들은 제외되고, 제작조차 불투명한 작품들, 지원이 필요없는 대형사들, 외화만 수입하는 회사들이 그 대상으로 선정된 데 있어 많은 영화인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이 분쟁은 1차 심사에서 당선된 20편 모두가 당선작으로 채택되는 것으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영화지원행정에 있어서의 비합리성과 비효율성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

최근, 영화산업에 있어 강한 자부심과, '너기타', '연인', '풍데프의 연인들' 등으로 높은 세계적 지명도를 갖고 있는 프랑스조차 점점 깊어지는 미국 영화의 침투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할리우드에 대한 강력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 파리 영화관의 60%이상이 미국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

21세기는 영상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영상산업에서의 승패가 결과적으로 국가의 존망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박 기 현
〈정과·신방 4〉

## 질투 · 갈등 · 화해 · 양보
# 남자 뺏는 웃긴 사랑 전쟁

그리고 '유라'의 코믹한 사랑전쟁이 결국 이 영화의 골격인데, 두 여자의 질투, 갈등, 화해, 양보로 이어지는 줄거리 전개는 그들의 '신사고'가 결국 소모적일뿐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주지 못하는 무용지물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재미있지 않은가? 이 영화의 '타겟 관객'은 분명히 이른바 '신세대'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관객들의 기호에 반하는 가치를 담을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이것은 흥행을 위해 신세대

대학인의 지성과 열정,
어디에 담을까요?

'문학인'
대학인은 모두 문학가죠.
대자보의 글, 과방 · 동아리방 낙서장안의 언어들, 친구에게 쓰는 편지 …
이런 아름다운 언어들을 원고지에 옮겨보세요.
시도 좋고 소설도 좋고 희곡, 번역도 좋겠죠.
감춰둔 재능을 펼쳐보세요.
문학가는 먼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다 왕성한 문학공간의 확산과 향기높은 언어예술의 찬란한 승화를 위한 외대 학보가 매년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에 외대인을 초대합니다.

제 31회 외대 문학상 현상모집
○모집부문 : 시(3편 이상) 소설, 희곡, 평론, 번역(70매 내외)
○접수처 : 외대학보 문학부
○마감 : 11월 30일(화)

□수필— '사학과 열살잔치'를 마치고

# "20주년 잔치에 꼭 갈께요"

사학과 학생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해준 '사학과 열살잔치'는 가을을 느낄 틈도 없이 바쁘게 진행되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막상 그 행사기간보다는 준비기간이 훨씬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다. 원래는 내년에 심주년행사를 해야 하는데 심주년행사를 보다 더 잘 치뤄내기 위한 준비로 열살잔치를 하는 것이다. 열살잔치 기간은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였는데, 그 그 일주일을 위해 우리는 거의 두달에 걸친 준비를 했다.

내가 맡은 일은 선전작업과 열살잔치기념 노래공연이었다. 내가 선전작업을 맡아서 그런지 힘들이 제일 많아 보였다. 열살잔치 기간에 치뤄지는 개막식, 사진전, 탁본제, 학술제, 만남의 날, 노래공연 등을 홍보하는 대자보를 각각 몇 십장씩을 쓰고 또 붙이는 일까지 해야했다. 물론 여러 선배님들과 동기들이 함께 해서 그 많은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협동이 필요한 작업은 현수막에 글씨 쓰는 것이었다. 인문대 복도에서 작업을 했는데 그 앞을 지나는 사학과 학생들은 모두 관심을 갖고 서로 글씨를 쓰겠다고 해서 붓이 모지랄 정도였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현수막이라 그런지 말끔한 맛은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그 지독한 페인트 냄새를 참아가며, 아픈 다리를 두드려가며 만든 현수막이 학교 곳곳에 나부낄 때 느끼던 '우리'라는 그 형언 기분은 말로는 표현 못하리라. 낮에는 선전작업을, 수업 후에는 노래연습을 하였다.

우리 노래패는 사학과 최고 학번인 84학번부터 각 학번이 가장 즐겨 부르던 노래를 한 곡씩 모아 개막식인 18일과 만남의 날인 24일에 공연할 예정이었다. 학번 별 노래를 한 곡씩 익힐 때마다 각 학번의 분위기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었다.

오랜 준비 끝에 18일에 드디어 열살잔치가 개막을 하였다. 우리 노래패의 공연과 함께 개막식이 시작되었다. 그 날 우리의 첫 공연은 너무 긴장한 탓인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개막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 아마도 박창희 교수님의 말씀일 것이다 - '막장사학' 이라는 단어였다. 80년대 우리 선배님들은 현수막이나 대자보에 이 단어를 즐겨 쓰셨다고 한다. 나도 '막장사학'이란 단어가 너무나 맘에 들었다.

개막식 후에 있었던 행사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말로만 들었던 마장동 버스가 담긴 사진을 전시한 사진전이었다. 사진전을 준비한 선배님 말씀이 마장동에서의 마지막 날 마지막 버스를 찍어놓은 거라고 하셨다. 진짜 사학과의 심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이었다.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열린 탁본전도 좋았다. 우리과의 유일한 전공학회인 탁본반은 오랜 기간의 준비 끝에 큰 행사를 그 명성답게 잘 치뤄냈다.

드디어 열살잔치의 하이라이트인 만남의 날이 왔다. 처음 보는 선배님들이 많이 오셨다. 얼굴은 처음이지만 이름이나 얘기는 많이 들어봤던 선배님들 인지라 마치 알고 지내던 선배님들을 만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꼭꼭구두 발아구가 아주 조금 남아있던 어색한 기운마저 없애버렸다. 선배와 후배 그리고 교수님들께서도 함께 하셨던 체육대회가 끝나고 모두 노래공연을 보기 위해 대강당으로 갔다.

'만남의 날' 이 순간을 위해 목이 쉬도록 연습을 한 우리 노래패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다. 우리가 한 학번을 소개하고 그 학번의 노래를 부르면 그 학번 선배님들은 모두 무대 위로 올라오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모두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학번별로 나누어보니 많이 참석한 학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학번도 있었다. 대체로 고학번으로 올라갈수록 선배님들의 수가 적어지는 듯 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84학번 선배님들을 소개했다. 이 황량한 왕신에 사학과를 우뚝 세운 84학번 선배님들이 나올 순서가 되자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고학번으로 올라갈수록 선배님들의 수가 적어진다고 느꼈던 나의 생각이 빗나가는 순간이었다. 84학번 선배님들의 수는 93학번 다음으로 많았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과가가 만들어지기전에 과가로 불렀다는 '참사랑'을 모두 다 같이 불렀다. '참사랑'이 84학번 선배님들의 노래였다. 열살잔치를 열심히 준비해주고 이렇게 불러주어서 고맙다는 한 84학번 선배님의 올림말이 나까지 가슴이 찡해옴을 느꼈다.

2004년에는 우리과가 20주년이 된다. 84학번 선배님들이 열살잔치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대선배가 되어 20주년행사에 가야할 것이다. 그때는 '열살잔치'라는 현수막이 아닌 '사학과 20주년 잔치'라는 큰 현수막이 왕신에 필럽일 것이다. 벌써 그 날이 기대된다.

박 정 희
〈인문 · 사학 1〉

파수대

**애국의 옷을 입히며…**
지난 3일(수) 경 · 평축구대회와 통일자전거 이어달리기 틀하에 대한 규탄대회 후 시내 선전전을 위해 지하철을 타려는 모습. <사진부>


# 1994학년도 전기 각 대학원 학생 모집

## 대 학 원 (주간) (961-4104, 962-7117)

1. 모집학과 및 학과 인원
   가. 석사학위과정(5개계열 37개학과) : 각 학과 약간명
   어문학계 : 영어과, 불어과, 중국어과, 독일어과, 노어과, 서반아어과, 일본어과, 아랍어과, 이태리어과, 힌디과, 국어국문학과, 포르투갈어과, 태국어과, 말레이 · 인도네시아과, 동유럽어문학과, 언어학과
   인문과학계 : 철학과, 사학과
   지역학계 : 아주지역, 중남미지역, 중동지역, 동구지역, 북미지역, 아프리카지역, 서구지역연구학과
   이학계 :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전자계산학과
   나. 박사학위과정 (4개계열 23개학과) : 각 학과 약간명
   어문학계 : 영어과, 불어과, 중국어과, 독일어과, 노어과, 서반아어과, 일본어과, 아랍어과, 국어국문학과, 언어학과
   인문과학계 : 철학과
   사회과학계 : 국제관계연구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신문방송학과, 무역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이학계 :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2. 원서교부 : 1993년 11월 3일(수) 부터 11월 12일(금) 까지
3. 원서접수 : 1993년 11월 10일(수) 부터 11월 12일(금) 17시까지
4. 전형일시 : 1993년 11월 26일(금) 오전 10시부터
5. 전형방법 : 필답 및 구술시험
   가. 석사과정 : 1) 전공 2) 영어(단, 영어과는 제2외국어), 3) 구술시험
   나. 박사과정 : 1) 전공 2) 영어 3) 제2외국어(단 이학계는 제2외국어 해당없음) 4) 구술시험

## 무 역 대 학 원 (야간) (961-4109, 962-7118)

1.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각 학과 ○○명
2. 모집학과 : 가. 경영학석사— 무역학과, 국제경영학과, 해운경영학과, 정보관리학과, 보험경영학과
   나. 경제학석사— 국제경제학과, 국제지역연구학과
3. 시험과목 : 가. 석사과정— 1) 논문 2) 외국어(23개국어중 택1) 3) 면접
   나. 연구과정— 1) 서류전형 2)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 1993년 11월 15일(월) 부터 11월 23일(화) 까지
5. 시험일시 : 1993년 11월 27일(토) 오후 2시부터
   * 비 상경계 전공자도 입학할 수 있음. 재학생 25%이상에게 장학금 지급함.
   * 해운경영학과나 석사학위취득자는 해부사 시험에 특전이 있음.
   * 실무경험이 다년간 있고 재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분은 특별우대함.

## 교 육 대 학 원 (야간) (961-4116, 963-6881)

1.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학위과정 00명
2. 전공분야
   * 어 문 계 : 국어교육, 영어교육, 불어교육, 독어교육, 서반아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러시아어교육
   * 인문사회계 : 역사교육, 윤리교육, 철학교육, 상담심리, 교육행정
   * 실 업 계 : 실업교육, 전자계산교육
3. 시험과목 : 1) 선택시험(전공), 2) 면접
4. 원서교부 : 1993년 11월 8일(월) 부터 11월 19일(금) 까지
5. 원서접수 : 1993년 11월 11일(목) 부터 11월 19일(금) 까지
6. 시험일시 : 1993년 11월 27일(토) 오후 2시
7. 특전
   * 취직고사에게는 수료시(5학기) 까지 수업료의 25%장 감면함.
   * 초, 중등학교 현직교사, 교감, 교장 및 장학사, 연구사, 교육행정직5급이상의 직급에 해당자인 시, 일반직원은 기관 장 의뢰일의 50%이내에서 특별전형할 수 있음.
   * 재직중 취업경험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함.

한국외국어대학교

## 경영정보대학원 (주간) (965-7045, 961-4119)

1.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각 00명
2. 모 집 학 과 : 경영정보학과, 응용전산학과
3.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 : 경영정보학과… 영어, 경영학원론, 구술시험
   응용전산학과… 영어, 전산학개론, 구술시험
   나. 연구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 1993년 11월 1일(월) 부터 11월 16일(화) 17시까지
5. 시 험 일 시 : 1993년 11월 25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본 대학원은 첨단학문분야인 경영정보학과 이와 관련된 학문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현대 유일의 주간 석사학위과정임. (대학원 전임교수 8인)
   * 교육의 목표는 현대경영학이론과 첨단컴퓨터이론을 접목시켜 정보시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MIS 전문인력의 양성에 둠.
   * VAX 시뮬트(유닉스 기종) 및 IBM PC 등의 실습실을 보유하고 있음.

## 정책과학대학원 (야간) (961-4093, 962-3950)

1.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00명
2. 모집학과 : 공공정책학과(공공정책전공, 공공행정전공, 외교안보정책전공, 북한학전공) 언론학과(신문방송전공, 광고홍보전공)
3. 시험과목 : 가. 석사학위과정 : 1) 논문 2) 영어 3) 면접
   나. 연구과정 : 1) 서류전형 2)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 1993년 11월 15일(월) 부터 11월 30일(화) 까지
5. 시험일시 : 1993년 12월 4일(토) 오후 2시부터
   * 대학(4년제)에서 타부문을 전공한 지도 응시할 수 있음.
   * 특히 관계분야 실무경력자는 우대함.

* 본 대학교 무역, 교육, 통역, 경영정보, 정책과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 교학과에 문의 바람.